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570-01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연구 책임자
민 병 곤

2014. 12. 12.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 기간: 2014년 8월 ~ 2014년 12월(5개월)

2014년 12월 12일

연구 책임자 :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책임자 민병곤

공동 연구원 전은주, 박재현, 서현석, 이유미

보조 연구원 조진수, 심미진

영상 제작 (주) SWINK

<국문 초록>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본 연구는 학교 내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또래 간 대화 지도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영상 자료는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상황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바람직한 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방법을 지도할 때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 자료 개발을 위해 청소년의 언어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와 원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국내외의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다. 특히, 청소년 대화 지도에 관한 해외 사례로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호주의 ‘Comebacks’ 프로그램, 핀란드의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을 상세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 언어에 대한 교육용 동영상의 비속어 등에 대한 교정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바른 대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인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화 지도 동영상의 주제를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공감적 경청’, ‘비언어적 표현’, ‘공격적인 말’, ‘대화 구도 인식 차이’의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주제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끝까지 들어, 줌.”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로 설정하여 동영상 자료를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를 위한 영상 자료는 교실의 수업 상황에서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로 단계화하여 한 번의 시청을 통한 내용 이해가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상황에 따라 교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각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 방법과 함께 제시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해당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아나운서가 소개하여, 교사가 학습 주제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 장면을 본 후 학습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봄으로써 이후 제시되는 문제 상황을 자신의 언어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상황’ 단계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장면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원인 해설’ 단계에서는 아나운서가 문제 상황에서 등장한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 상황’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주제와 관련된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 및 학습지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는 비속어 교정 중심, 성인 및 유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또래 간 대화 방식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의 보급 및 확산과 교육적 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논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가 학교 교육 체제와 연동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동영상 공모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 가족 간 대화 프로그램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공감적 경청, 비언어적 표현, 공격적인 말, 대화 구도 인식 차이

<Abstract>

Development of Guidance Video Materials for the Establishment of Sound Conversation Culture for Juveni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video conversation guidance materials for juveniles in order to establish wholesome conversation culture between them. The video guideline is a useful and reliable education material as it provides appropriate conversation suggestions for each problematic conversation patterns of high school juveniles by situations based on conversation analysis.

The first step of the video development is to analyze previous researches on conversation analysis of teenagers, and overseas researches on guidance for adolescent conversation programs such as the “Verbal Self Defense” of the US, “Comebacks” of Australia, and “KiVa Anti-bullying” of Finland were analyzed in detail. The analysis revealed that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of educational video material for teenagers were mainly focused on how to correct the problem of using slang words, instead of suggesting the properly way of conversation. Actually, previous researches on conversation methods were mainly targeted for adults or infa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the five topic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appropriate turn taking sequence”, “empathic listening”, “non-verbal expressions”, “aggressive wordings”, and “awareness differences in conversation composition”. In order to enhance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video materials, the topics were constituted as “Hear me out, please!” ↔ “What are you trying to say?”, “Do you hear me?” ↔ “Huh? Yeah, yeah...”, “I feel bad...” ↔ “Aren’t you too sensitive?”, “You make me feel bad.” ↔ “I’m just kidding” and “I can’t understand you at all.” ↔ “No, no. I didn’t mean that...”.

The video materials are divided into sequential stages, that is “introduction – problem situation – reason and explanation – ideal situation – conclusion”, so that teachers can use them as supporting materials accordingly. Moreover, supplementary exercises are designed for each stage in order to maximize the educational application of the materials.

The five stage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introduction” stage, the topic and the relevant conversation situation are introduced by professional announcer and students are guided to express their opinions individually. During the “problem situation” stage, students are encouraged to review the problems of each situation according to their real life experiences. In the “reason and explanation” stage, the reasons of the problem are

revealed by the discussion between the teenagers involved in the problem situation and the announcer via the video content, so that students can think about the reasons from a more objective point of view. Then, in the “ideal situation” stage, the ideal way of conversation is showed to learners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blem situation. and lastly in the “conclusion” stage, the ideal conversation related to the topic is reinforced via revision.

This research of educational video materials not only provides useful and practical guidelines of ideal conversations for juvenile, but also gives suggestions about how to use teenagers’ conversational data as supporting education material. We suggested that the conversation guidances for juvenile must be related to their educational programs and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via related events such as video contest. Moreover, customized conversation guidances for students of different level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educational effect could be enhanced by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conversation analysis data.

Key words: sound conversation of juveniles, appropriate turn taking sequence, empathic listening, non-verbal expressions, aggressive wordings, awareness differences in conversation composition

Project Director: Min, Byeong-g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례

I. 서론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3.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3

II.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1. 선행 연구	5
1.1. 청소년 대화 실태 연구	5
1.2. 또래 간 대화 분석 및 대화 지도에 관한 연구	7
2. 청소년 대화 지도 해외 사례 검토	9
2.1.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9
2.2. 호주의 ‘Comebacks’ 프로그램	11
2.3. 핀란드의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12
3.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	13

III.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 설계

1.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 설계의 방향	15
2.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의 내용 구성	16
2.1. 교육 영상의 내용 구성	16
2.2. 학습지의 내용 구성	17

차 례

IV.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 개발 결과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19
1.1. 개발 의도 및 취지	19
1.2. 시나리오	20
1.3. 학습지 (학생용)	26
1.4. 학습지 (교사용)	28

2. 공감적 경청

: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32
2.1. 개발 의도 및 취지	32
2.2. 시나리오	33
2.3. 학습지 (학생용)	39
2.4. 학습지 (교사용)	43

3. 비언어적 표현

: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48
3.1. 개발 의도 및 취지	48
3.2. 시나리오	49
3.3. 학습지 (학생용)	53
3.4. 학습지 (교사용)	56

4. 공격적인 말

: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61
4.1. 개발 의도 및 취지	61
4.2. 시나리오	62
4.3. 학습지 (학생용)	68
4.4. 학습지 (교사용)	71

차 례

5. 대화 구조 인식 차이

: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77
5.1. 개발 의도 및 취지	77
5.2. 시나리오	78
5.3. 학습지 (학생용)	84
5.4. 학습지 (교사용)	87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92
2. 제언	92
참고 문헌	94

표 차례

[표 1]	동영상별 주제와 제목	3
[표 2]	교육부 ‘방패말 프로젝트’ 내용	11
[표 3]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 목록	13
[표 4]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주제 및 제목	15
[표 5]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구성 단계	16
[표 6]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인물별 성격	17
[표 7]	학습지의 구성 요소	18

그림 차례

[그림 1] 청소년 언어 문제의 원인(국립국어원, 2011)	2
[그림 2]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안내 자료(www.defendyourself.org)	10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내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교육은 청소년 언어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호주의 ‘Comebacks’ 프로그램, 핀란드의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여러 종류의 언어 교육 영상 자료가 개발되어 있지만, 대체로 비속어 등 잘못된 말을 교정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 대상이 성인 및 유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교육을 위한 영상 자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래 간 대화 방법을 지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대화 교육의 경우 실제 대화 장면 없이 교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실제 대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영상에 대한 학습자용 학습지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하고 각 주제별로 교육용 영상 및 학습지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대화 관련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검토

- 국립국어원(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청소년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 맥락 및 화자 요인을 분석
- 국립국어원(2011),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 청소년 언어 실태 및 언어 의식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한국교육원총연합회(2011), 언어문화 개선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교사 및 학생의 언어의 특징을 개괄하고 생활공간에 따라 사용 언어를 분류하여 학교 언어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

- EBS 다큐프라임(2011), ‘욕’해도 될까요?
: 학생들의 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욕설 사용의 영향,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
- 국립국어원(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연속 토론회
: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학부모·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언어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
- KBS(2012), 한국어 연구회 자문회의
: 청소년의 언어 개선 방안을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
: 문제가 되는 표현의 유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학생들의 행동 변화 단계에 따른 지원, 개선 방안 시행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등의 방안
- 한국화법학회(2012), 청소년 말 문화 실태와 개선 방안 학술대회
: 청소년의 말 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
- Olweus(1993),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 학교, 교실,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를 다루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짐.
- 핀란드(2009), KiVa Anti-bullying program
: 언어적·신체적·사이버 괴롭힘 모두를 다루며 학생들의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교육을 지향
- Beale & Scott(2001), Bullybuster
: 다양한 학생 간의 괴롭힘 양상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시청한 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
- 호주의 언어교육 프로그램 ‘컴백스(Comebacks)’
: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재치 있는 답변으로 받아 넘기는 언어 표현 방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립국어원(2011)에서 분석한 청소년 언어 문제의 원인



[그림 1] 청소년 언어 문제의 원인(국립국어원, 2011)

○ 청소년(초·중·고등학생)의 바람직한 대화 전략 및 개선 방안 제시

- 바람직한 대화 전략 및 개선 방안, 대화 유형별 예시를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 문제가 되는 주요 대화 상황과 원인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중심으로 분석: 대화 구도에 대한 인식 차이, 청자의 듣기 태도, 화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등
-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화 유형별 방안 마련: 대화의 맥락에 대한 섬세한 인식,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사용 등

○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동영상 자료 개발

- 동영상 5편(Full HD 1080p급, 편당 10분 이내): 학습자용 5편
- 교사용은 학습자용 동영상 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구성
- 학습자용 동영상은 대화 상황별 ‘문제 인식 - 심층 고찰 - 문제 해결’의 순으로 구성

○ 동영상별 주제와 제목

[표 1] 동영상별 주제와 제목

구분	주제	제목
I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뭘데.”
II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III	비언어적 표현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IV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V	대화 구도 인식 차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3.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교육을 위한 영상 자료의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대 효과>

○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화 전략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활용 가능성 높임.

- 기존의 대화 지도 자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화 방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원론

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상 자료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대화 상황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실제 대화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음.

○ 내러티브 기반의 시나리오 구성 및 실사 촬영, 플래시 등을 통하여 영상의 흥미도 높임.

- 동영상의 내용을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의 순서로 구조화하되 내러티브적 구성을 취함으로써 흥미 제고
- 흥미 유발을 위한 플래시와 함께 또래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실사 촬영으로 현장감 제고

<활용 방안>

○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구성.

- 동영상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학생이 개인적 관심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수업 상황에 따라 교사가 적절한 주제의 영상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영상별로 학습지를 개발하였고, 영상 및 학습지의 개발 의도 및 취지를 설명하여 교사가 영상의 개발 의도를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나의 동영상을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와 같이 짧은 단위로 분절하여 수업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II.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1. 선행 연구

1.1. 청소년 대화 실태 연구

-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청소년의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이에 관한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진행된 대규모의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로 ‘학교생활 욕설 사용 실태 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 문화 실태 조사(여성가족부, 2010), 방송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국립국어원 2011)’ 등을 들 수 있음.
- 국립국어원(2011)에서 실시한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는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의 초·중·고생 6,053명과 교사 1,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초·중·고생 542명의 입말과 글말 자료를 분석한 대규모의 실증적 연구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생의 97%, 중학교생의 99%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응답하였음.
-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동기는 많은 경우 ‘상대방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 ‘장난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응답함.
-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에 중·고등학교 응답자의 36.9%가,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20.4%의 응답자가 긍정하는 입장을 보임.
- 한국교육개발원(2010)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 1,26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학교급별 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그 주요 내용 중에서 학교급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욕설 사용의 이유에서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생은 ‘남들이 사용하니까’가 29.6%로 1위, 중학교생은 ‘습관이 되어서’가 29.4%로 1위, 고등학교생은 ‘습관이 되어서’의 응답률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교

보다 더 높아져 33.4%에 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25.9%로 2위를 나타냄.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욕설 사용이 습관화되는 경향을 보여줌.

- 욕설을 하고 난 후의 기분에 대한 응답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음. 초등학생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욕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응답률(66.7%)이 높았으나, 중학생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응답률이 39.4%로 고등학생의 응답률 34.9%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욕을 들었을 때의 기분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급별로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욕을 한다’는 응답이 중학생(40.7%), 고등학생(33.1%), 초등학생(28.2%) 순으로 나타남. 중학생의 욕설 사용 욕구가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보다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강희숙 · 양명희(2011)에 의하면 욕설 사용의 실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된 최근의 몇몇 대규모 실태 조사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조사 결과 확인된 욕설 사용 양상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욕설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94.6%(한국교육개발원, 2010:16) 또는 98%(국립국어원, 2011:144)가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욕설이 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상화, 보편화된 모습을 보여줌.
- 욕설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씨발, 개씨발, 씨발새끼, 씨발년, 시브랄’ 등과 같은 성적 욕설임(한국교육개발원, 2010:12).
- 욕설을 습득하는 경로는 ‘친구’가 47.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 26.4%, ‘영화’ 10.2%, ‘형제’ 4.4%, ‘텔레비전 프로그램’ 4.3% 순으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2010:15).
- 욕설 사용 활동 및 대상은 ‘친구들과 놀면서’, ‘친구’를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욕설은 일종의 놀이 문화이자 또래 관계를 맺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친한 사이일수록 거칠고 자극적인 욕설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 욕설 사용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서’라고 할 수 있는바, ‘스트레스의 해소’나 ‘친구들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와 같은 순기능적 동기들보다도 욕설의 자동화가 더 큰 동기가 되고 있음.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문제 언어의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의 거친 강도나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국립국어원, 2011:144).
- 글말이나 통신언어에 비해 입말에서 욕설 등 공격적인 언어 표현이 더 빈번하게 사용됨(국립국어원 2011:144).

○ 이윤지(2013)에서는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을 청소년 언어문화의 하나로 보고, 두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녹음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학원, PC방 등에서 사용하는 ‘청

소년의 비속어 사용 현상'의 양상과 비속어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음.

-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로 조사된 105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씨발'로 총 93회 사용되었으며 씨발의 변이형인 '띠발', '또발'도 각각 8회, 3회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존나'가 64회로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냈는데, '존나'의 변이형인 '줄라'의 경우도 26회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의 경우 '담임'을 뜻하는 '담탱'만이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은어 표현보다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속어나 욕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
-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대상이나 상황을 비속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거나 재미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보다 더 강렬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음.

○ 이동민(2012)은 경기도 내 중소 도시의 고등학교 1, 2학년 남·여학생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욕설 사용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였음.

- 욕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습관적으로' 29.5%, '친근감의 표시로' 23.4%, '남들이 사용하니까' 18%, '스트레스 때문에' 9%, '친구들이 다 쓰기 때문에' 8%, '화가 나서' 7%,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4% 순으로 조사되었음.
- 욕설을 사용하고 난 후의 느낌에 대한 응답에 71%의 학생이 '별 느낌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조금 부끄럽지만 곧 잊어버린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6%였으며, 욕설을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에 불과했음.
- 욕설을 듣고 난 후의 상대방의 반응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66%, '친근감을 표시했다' 25%, '나와 비슷한 욕설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했다'에 8.8%로 나타났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이 욕설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자신들의 욕설 표현이 당연하며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냄.

1.2. 또래 간 대화 분석 및 대화 지도에 관한 연구

○ 박희숙(2009)에서는 또래 협력 학습이라는 학습과정의 성공요소로서 어떠한 언어 상호작용이 필요한지 알아내고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소집단 대화를 분석한 바 있음.

- 유추문제 해결에서 전반적으로 또래 대화의 '공유의 기능'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력 활동에 있어 서로의 의미를 교류하는 작업이 필수임을 의미함
- 또래 대화의 기능 중 관리의 기능은 교류의 내용을 정교화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대화 과정을 통한 유

추문제 해결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또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활동 및 대화 분석에서의 기능적 범주를 Verba(1994), 박동섭(1996)에서 인용하여 활동의 정교화(협응, 활동의 결과), 공유(파트너에 대한 관심, 상호이해), 관리(활동의 자기 점검, 안내 책략) 등으로 제시하였음.

○ 서현석(2005)은 초등학교 5,6학년의 소집단 대화에서 ‘협의’ 양상을 제시하였음. 해당 연구에서는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을 ‘전개, 응대, 강조, 무관심한 행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후 협의 유형을 ‘앞사람 따라하기’, ‘말 자르기’, ‘의견 바꾸기’ 등으로 제시하였음.

○ 박순애(2008)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간 촉진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 결과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음.

- ‘또래 간 촉진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가장 의미 있는 조력자로서의 또래가 촉진자가 되어 서로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공감과 무조건적인 존중, 솔직성을 통해 돈독한 인간관계를 체험하도록 10회기로 개발된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또래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카드를 이용하여 자기를 개방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기 효능감과 학교 적응 능력의 향상을 이루고 아울러 자기 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졌음.
- ‘또래 간 촉진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대화의 주제와 대화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제공하고 소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자기 개방적 또래 대화 지도 방안에 시사점을 줌.

○ 국립국어원(2011)에서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부추기는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4개 우선 과제와 4개의 차기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후 국립국어원에서는 청소년 언어 개선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음.

-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 개선 관련 사업 : 청소년 언어 개선 방송 프로그램 개발(“청소년 욕 사용 실태 보고-고운 말, 미운 말”), 청소년 언어 개선 자율 활동 조직 및 지원(청소년 언어 개선 동영상 UCC 공모전, 청소년 우리말 사랑 캠프),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자율 학습 교재 개발(“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 등이 있음.

○ 김평원(2012)에서는 청소년의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의 방법으로 태도교육법, 통합교육법, 프로젝트 수행법 등을 제시하고 실행해 옮긴 결과, 프로젝트 수행법만이 다른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음.

- 이동민(2012)은 청소년 욕설 사용 실태를 살펴본 다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해야 하며, 교사와 부모의 언어 사용 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협의적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학생의 욕설 사용 자정 활동, 학교에서의 욕설 사용에 대한 학습지도, 또래 집단에 맞는 욕설 순화 교육 실시, 학생 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활동 등을 제시하였음.

2. 청소년 대화 지도 해외 사례 검토

2.1.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 Verbal Self Defense는 Verbal Judo 또는 Verbal Aikido라고도 알려짐. 이를 다룬 대표적인 책은 미국의 Suzette Haden Elgin의 “The Gentle Art of Verbal Self Defense”임.
- 정신과 감정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폭력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언어 사용법임.



- 언어적 자기 방어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언어적 자기 방어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안, 부적응, 수치 등 상처를 주는 감정을 유발하는 상대, 상황, 행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언어적 자기 방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관건은 정신적/감정적으로 갈등에 반응하는 사람에 대한 조정임.
 -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획득은 언어적 자기 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얻는 커다란 유익임. 언어폭력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표현 전략을 익힐 필요가 있음.

○ 언어적 자기 방어의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음.

- 피하기(Avoidance)
- 물러나기(Withdrawing)
- 비껴가기(Deflecting)
- 타협하기(Compromise)



Speak Up! Basic Verbal Self Defense Guidelines

- ☐ Use your voice, facial expression, and body language.
All three channels of communication should be in synch. Avoid giving mixed messages.
- ☐ Project confidence and calm.
Don't plead or apologize. You can act calm, serious, and confident even when you don't feel that way.
- ☐ Tell them what you want.
Say, for example, "Stand over there" or "Stop touching me."
- ☐ Repeat yourself.
Repetition often gets them to stop what they're doing. And if they don't hear you, or respect your request, that gives you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m and their intentions.
- ☐ Peg your response to level of the threat.
"Match" their intensity, and get more intense if you need to.
- ☐ Stay on your own agenda.
You don't need to respond to diversions, threats, questions, blaming, guilt-tripping, and so on. Just stick to your point.
- ☐ Make no excuses.
Being polite is fine at first, but if they don't respond, drop the niceties. You don't need to apologize for how you feel or what you want. You also don't have to wait for your "turn" in the conversation.
- ☐ Use statements.
"Leave me alone," not "Would you please leave me alone?"
- ☐ Attack the behavior, not the person.
Tell them what they are doing that you don't like ("You're standing too close") rather than blaming them as a person ("You are such a jerk"). Avoid cursing, name-calling, put downs, and other things that could escalate the situation unnecessarily.

[그림 2]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안내 자료(www.defendyourself.org)

- 언어적 자기 방어는 가해자 위주의 언어폭력 방지 정책과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행위를 점검하고 언어폭력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2.2. 호주의 ‘Comebacks’ 프로그램

- ‘Comebacks’는 2000년대 후반 호주의 학교에서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임. ‘comeback’은 ‘(비판에 대한) 재빠른 응수, 말대꾸, 재치 있는 대답’이라는 뜻의 속어인데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재치 있는 답변으로 받아 넘기는 언어 표현 방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에서는 전반적인 학교 폭력은 감소 양상이지만 언어폭력 현상은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이를 ‘방패말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상황별 대응 표현을 개발하여 초·중·고 매뉴얼 제작 및 각종 교사 연수를 통해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요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자료: 교육부)

[표 2] 교육부 ‘방패말 프로젝트’ 내용

동의하면서 자기를 낮추기	A: 또 실수 했니? 네 실수 지적하느라 입이 아플 지경이다. B: 그렇게 매번 실수 고쳐 주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상대방을 오히려 칭찬하기	A: 야, 너 또 지각이냐, 귀가 먹었냐? 알람도 못 듣게? B: 안녕, 반갑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는데.
과장해 동의하기	A: 네 아이디어는 진짜 쓰레기야. B: 맞아, 엉망진창이지. ‘엉망진창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감이지.
주제 바꾸기	A: 넌 되게 멍청하다. 그것도 까먹다니. B: 아, 그 말 듣고 보니 마트에서 예쁜 신발을 본 게 기억나. 사야 할까?

- 호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음(중앙일보 2014. 2. 21. “놀리는 친구에게 ‘관심 고마워’ 하라고?”).
- “취지는 좋지만 한국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 “논리적인 대화나 농담에 익숙한 서구와 달리 우리 청소년은 순간적인 대화에 익숙한 편이다. 상황에 어

울리지 않는 말은 되레 놀림감이 되거나 상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언어 습관이 굳어진 중고등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 호주의 Comebacks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하지만 의사소통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의 학교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표현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3. 핀란드의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 핀란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예산으로 2006년 1월 9일부터 Turku 대학(연구 책임자: Salmivalli)에서 개발하여 2009년에 전 학년 프로그램 완성함. 핀란드의 90% 학교에서 프로그램 도입.
- 언어적·신체적·사이버 괴롭힘 모두를 다룸
- 괴롭힘 현상이 또래 집단에서 힘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희생자가 필요한 집단 역학으로 전제하고, 괴롭힘 방지, 잠재적 피해자 지원,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교육에 주안점을 둠.



- 교실에서 괴롭힘 방지 태도 신장에 역점을 둔 2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토론, 소집단 활동, 영상 시청, 역할극, 5단계 상호작용 컴퓨터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www.kivakoulu.fi (공식 홈페이지)
- 이 중 영상 시청 후의 다양한 학습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Beale & Scott(2001)은 상담가와 드라마 제작자들과 함께 ‘Bullybuster’라는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드라마로 제작하였음.

- 드라마를 본 후 영상 내용에 대해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체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임. 자율적으로 교실 규칙을 정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활동을 하고, 그 후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함.
- KiVa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화 전략과 더불어 학습 활동의 구성 특히 영상 자료의 활용이 주는 시사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

- 검토한 동영상들을 종합해 보면 언어에 대한 교육용 동영상은 바르지 못한 말인 준말, 비속어 등에 대한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외에 바른 대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부분 성인 프로그램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3]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 목록

영상제목	연도	영상 내용	영상 특징
군 언어 프로젝트 -바른 말을 사용하자 (국방TV)	2014	잘못된 은어나 외래어 사용 실태와 바른 언어에 대한 소개	대상자 인터뷰 방식 설문조사 방식 아나운서 진행 방식
장병 언어 순화 교육 다큐 (국방 TV)	2013	잘못된 은어나 외래어 사용 실태와 바른 언어에 대한 소개	전문가 패널 방식 실재 내무반 촬영 방식 인터뷰 방식
세종대왕으로 통하다 (KBS)	2013	긍·부정적 말하기가 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성, 질문하기의 필요성. 갈등 조율을 위한 대화 방식	전문가 자문 인터뷰 방식 주제에 대한 실험 방식
당신의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	2013	청소년 비속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홍보영상(1분 2초)	홍보 영상물
언어발달의 수수께끼 (EBS)	2011	언어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성, 바른 언어 노출이 아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자문 인터뷰 방식 주제에 대한 실험 방식
한글날 기획 청소년 욕 사용 실태 보고 (KBS)	2011	청소년 욕의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패널 좌담 방식 청소년 인터뷰 방식

말의 힘 (국립국어원 공동기획 MBC 특집)	2009	긍정어와 부정어가 가진 물리적 힘에 대한 소개	전문가 자문 인터뷰 주제에 대한 실험 방식
경어법 홍보 동영상 (국립국어원)	2013	잘못 사용하는 우리말과 이를 대체할 바른 언어 소개	플래시 애니메이션 방식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폭력 문제뿐 아니라 관계 교육을 동반하는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 교육형 대화 교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본 연구가 필요함.

III.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 설계

1.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 설계의 방향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가 청소년들의 대화 문화 확립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또래 간 대화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 방향을 다룬 선행 연구와 청소년 대화 지도에 관한 해외 사례인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호주의 ‘Comebacks’ 프로그램, 핀란드의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4]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주제 및 제목

구분	주제	제목
I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II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III	비언어적 표현	“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IV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V	대화 구도 인식 차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년 대화 지도 동영상의 주제는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공감적 경청’, ‘비언어적 표현’, ‘공격적인 말’, ‘대화 구도 인식 차이’의 다섯 가지이고, 각 주제별 영상의 제목은 각각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로 설정하였다. 주제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와 별도의 제목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를 위한 영상 자료는 교실의 수업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와 같이 단계화하여 한 번의 시청을 통한 내용 이해가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상황에 따라 교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 각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단계화 방식에는 차이를 두었다. 또, 각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 방법과 함께 제시하였다.






2.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의 내용 구성

2.1. 교육 영상의 내용 구성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를 위한 영상 자료는 교실의 수업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도입’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아나운서가 소개하여, 교사가 자연스럽게 학습 주제를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 상황’ 단계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장면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원인 해설’ 단계에서는 아나운서가 문제 상황에서 등장한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 상황’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주제와 관련된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하였다.


[표 5]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구성 단계

단계	내용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아나운서가 소개 - 교사가 학습 주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함. 	
문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장면 제시 - 학습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원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운서가 문제 상황에서 등장한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설명함. - 학습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상황 제시 -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함.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와 관련된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 	

영상에서 제시한 대화 상황은 청소년들의 실제 대화 상황에 가깝게 구성하였고, 청소년의 언어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였다. 또, 대화 상황이 청소년의 실제 대화 상황에 가까우면서도 해당 주제를 구현하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 없는 요소는 제거하여 대화의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각 영상별로 등장하는 인물¹⁾의 이름과 성향을 통일하여, 동영상 전체를 보는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즉, 인물의 성격에 통일성을 줌으로써 다섯 편의 영상 간의 연계성을 높였다.

[표 6]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인물별 성격

태호(남자)	성규(남자)	민우(남자)	민하(여자)	희주(여자)	유진(여자)
					
-현실적 -약간 자기중심적임.	-감정적 -솔직한 성격	-소심하고 분쟁을 싫어함. -해야 할 말은 하는 성격	-뚝 부러지는 성격 -관계 지향형 성격	-직접 욕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임.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함. -느긋한 성격

또한, 도입이나 원인 해설 등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나운서의 얼굴 부분만 실사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흥미를 높였다.

2.2. 학습지의 내용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화 교육용 동영상은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업 시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영상의 주제와 내용에 맞게 학습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습지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극중 인물인 ‘태호, 민우, 성규, 민하, 희주, 유진’ 역은 다음의 연기자들이 연기하였다. 그 외 단역으로 중앙중학교의 김동현, 최영조 학생이 참여하였다.

등장인물	연기자	등장인물	연기자
태호	노윤성	민하	채유진
민우	이충환	희주	이수빈
성규	손준영	유진	김경민

[표 7] 학습지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예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영상 자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 제시 	<p>[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한다. -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생각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을 보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중에 친구가 자신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말해 보자.
문제 상황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태호와 성규가 화가 난 이유를 대화 방식에서 찾아 이야기해 보자.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명이 한 모듬이 되어, 태호, 성규, 민우의 역할을 맡아 다투지 않고 대화하도록 노력해 보고, 세 명이 다투지 않고 대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태도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전략을 고려하며, 3~4명이 한 모듬이 되어 대화해 보자.

학습지의 구성 요소는 ‘학습 목표’, ‘생각 열기’, ‘문제 상황 파악하기’,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적용하기’의 다섯 가지이다.

학습지에 해당 영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가장 먼저 제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고려하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생각 열기’에서는 영상을 보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이후 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관련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를 통해 해당 영상에 나타난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기’에서는 영상을 통해 학습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연습을 해 보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였다.

Ⅳ.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 개발 결과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1.1. 개발 의도 및 취지

□ 개발 의도와 취지: 이 자료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화 순서를 바꿔가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대화 방식을 성찰해 보도록 한다.

□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의 중요성

대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의 역할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이루어진다. 즉,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가 되고 청자가 화자가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와 같이 대화는 계속적인 대화 순서의 교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경우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없다.

□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의 특성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며 대화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적 태도에 해당한다. 대화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순서 교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화 상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끼어드는 것은 대화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과의 대화에서 대화 순서 교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야 일상생활에서 또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대화할 때 갑자기 끼어들어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담긴 상황에서

시작한다. 문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등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친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을 제기하여,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을 경우 대화 참여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원인 해설과 개선 상황 제시를 통해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마무리에서는 대화를 캐치볼에 비유하여 대화는 대화 순서의 지속적인 교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2. 시나리오



[도입]

<p>(화면 좌측. 친구 둘이서 뭔가 쑥덕거리더니 킬킬 웃고 있다.) (화면 우측에서 아나운서 등장.)</p> <p>아나운서 : (잠깐 서서 아이들을 보더니,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애들아 너희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p>	
<p>(친구 하나가 아나운서에게 뭔가를 이야기 한다.)</p> <p>아나운서 : 아 그거? 그건 말이지..</p> <p>(말을 자르며 옆에 있던 친구가 끼어들어 뽀뽀거리다.)</p> <p>아나운서 : (당황해하며 중얼거리듯) 뭐야? 갑자기!</p> <p>(계속해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뽀뽀거리며 아나운서 쪽으로 다가오고, 아나운서는 손으로 귀를 막는다. 옆에 있던 친구는 마지막으로 삐익 소리를 내며 좌측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p> <p>아나운서 : (귀를 막았던 손을 내려놓으며 한숨) 에휴. 이제 좀 살겠다.</p>	
<p>아나운서 : (정면을 바라보며 목소리 가다듬고) 음! 음!</p> <p>여러분들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어 대화가 끊긴다거나,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p> <p>(화면 위쪽에서 패드가 나오고, 패드 전원이 켜진다.) 아이, 깜짝이야.</p> <p>“끝까지 들어 / 줌” ↔ “하고 싶은 말이 / 원데.”</p>	
<p>아나운서 : 지금부터 만날 친구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p>	



[문제 상황]


등장인물	<p>* 민우 : 약간 소심함. 분쟁을 싫어함. 조용히 할 말은 다 함.</p> <p>* 태호 : 약간 자기중심적, 현실적</p> <p>* 성규 : 감정적, 솔직함.</p>
시/공간 배경	방과 후, 교실 안, 청소 시간
상황	<p>(아까) 체육 시간에 태호와 성규는 축구 시합을 했고, 태호와 성규네 팀은 다른 팀에게 졌다. (어제) 청소는 같이 해서 20분 만에 끝났다.</p> <p>방과 후, 태호, 성규, 민우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다.</p> <p>태호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규는 민우에게 툭툭 장난을 치면서 설렁설렁 청소를 하고 있다.</p>

<p>(성규와 민우가 청소 중 장난을 치고 있다. 태호는 성규와 민우를 흘깃 쳐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쉰 다음 청소를 멈추고 말한다)</p> <p>태호 : (약간 불만에 찬 표정으로) 야! 왜 나만 청소해? 좀 나눠.</p> <p>성규 : (어리둥절한 표정) 뭘?</p> <p>태호 :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닦아. 난 앞뒤 할 테니까.</p> <p>성규 : (어이없어 하며)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p> <p>태호 : (말 자르며, 빗자루로 책상을 톡톡 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데만 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지 빨리 끝나지.</p>	  
<p>(성규 옆쪽에 서서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던 민우. 뭔가 좋은 생각이 난 듯)</p> <p>민우 : (조심스럽게)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건...</p> <p>(민우의 말을 자르고 민우는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태호에게 덤비듯 한 발 다가서는 성규)</p> <p>성규 : (약간 비꼬며) 야, 어제도 했는데 20분 만에 끝났잖아. 도대체 왜 바꾸려는 건데? 까놓고 얘기해서 너 아까 시합 진 것 때문에 그러지? 내가 아까부터 느꼈는데...</p>	 





<p>(태호와 성규가 싸울까 봐 말리려는 듯 둘 사이로 끼어드는 민우)</p> <p>민우 : 아니... 내 말 좀 (들어 봐)</p> <p>(민우의 말을 자르고 성규 쪽으로 한발 앞으로 나서는 태호)</p> <p>태호 : (억울한 듯 얼굴을 붉히며) 넌 왜 사람 말을 그따위로 듣냐? 내가 그딴 축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냥 빨리 청소 끝 내고 피시방 가려는 거 아냐.</p> <p>성규 : (눈 약간 피하고 비꼬듯이) 하여간 개인적인 거 참 좋아해요. 솔직히 아까 시험 때도 네가 갠플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나 대지만 앉았어도 안 발렸어.</p>	
<p>(민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붉어지며 성규 말을 자 르고 끼어들기를 시도)</p> <p>민우 : (폭발할 것 같이 얼굴이 붉어짐) 야, 잠깐만, 잠깐만...</p> <p>태호 : (민우의 말 자르고 성규를 향해) 내가 나됐다고? 내가 네 실 드 쳐 주느라 그런 거 아냐. 넌 왜 맨날 사람 말...</p> <p>성규 : (태호의 말 자르고 어이없어 하며) 네 실력에 실드는 무슨 실 드. (포기한 듯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며) 됐고, 청소나 하...</p> <p>태호 : (또 말 자르고 비아냥대듯) 야, 내가 아까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미 청소 끝났어.</p> <p>성규 : (발끈하며) 뭔 소리야... 내가 말만 안 걸었어도 벌써 청소 끝 났어.</p> <p>민우 : (말 자르고, 폭발한 듯 소리치며) 제발! 내 말 좀 들어 보라고!</p> <p>(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민우. '깜짝이야' 하는 듯 액션을 취하는 태호, 성규) 5초간 상황 영상 지속 / 배경음악</p>	

[원인 해설]


<p>앞 상황에서 화면 점점 작아지며, 패드 속 화면 꼭 찬 영상</p> <p>아나운서 : 잘 보셨나요? 청소를 하고 있던 태호, 성규, 민우는 뭔가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는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p>	
<p>(사이가 좋지 않은 듯, 태호, 성규, 민우 픽토그램 순서대로 등장)</p> <p>아나운서 : 애들아, 너희 왜 화가 난 거니?</p> <p>아이들 : 재 때문ですよ! (하고 서로를 가리킨다)</p> <p>(땀 흘리는 아나운서,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p>	




<p>아나운서 : 애들아 진정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같이 한번 볼까?</p> <p>패드 등장. 좌측, 아이들 / 우측 아나운서 (뒷모습, 혹은 옆모습으로 함께 패드 시청)</p> <p>앞의 화면 중 하나 등장. 2배속으로 되감기를 하다가</p> <p>패드 사라지며 급격한 장면 전환. 다음 화면부터 전체 화면으로 재생</p> <p>태호, 성규 민우 / 아나운서 픽토그램의 뒷모습으로 화면을 시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p>	
---	---

[문제 해결 1]



<p>태호 :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쪽 해. 난 앞뒤 할 테니까.</p> <p>성규 : (어이없어 하며)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p> <p>태호 : (말 자르며, 빗자루로 책상을 탁탁 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데만 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 빨리 끝나지.</p>	
<p>태호가 성규 말을 잘라먹자, 얼굴 옆에 기분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과 열 받은 효과</p> <p>(자막) :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냐?</p>	
<p>성규 : 저 봐! 태호 너 내 말도 다 듣지 않고, 네 말만 했지?</p> <p>(미안하고 민망해서 땀 흘리는 태호(땀))</p> <p>아나운서 : 그래서 성규가 화가 나서 태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든 거야?</p>	
<p>태호 : 근데, 민우는? 넌 왜 화난 거야?</p> <p>성규 : 그러게?</p>	





[문제 해결 2]

<p>민우 : (조심스럽게) 야... 그럼 이건 어...</p> <p>(민우의 말을 자르고 민우는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태호에게 덤비듯 한 발 다가서는 성규)</p> <p>성규 : (약간 비꼬며) 야 어제 또 같이 했는데 20분 만에 끝났잖아.</p>	
---	---



<p>왜 바꾸려는 건데? 까놓고 얘기해서 너 아까 시험 진 것 때문에 그러지? 내가 아까부터 느꼈는데...</p>	
<p>(태호와 성규가 싸울까 봐 말리려는 듯 둘 사이로 끼어드는 민우)</p> <p>민우 : 아니... 내 말 좀 (들어 봐)</p> <p>(민우의 말을 자르고 나서는 태호)</p> <p>태호 : (억울한 듯 얼굴을 붉히며) 야. 넌 왜 사람 말을 그 따위로 듣냐?</p>	
<p>(효과) : 민우,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며 기분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과 열 받은 효과 삽입</p> <p>화면 속, 민우 말풍선 : 니들만 말하냐?</p>	
<p>민우 : 내가 왜 화났는지 알겠냐?</p> <p>(성규, 태호 미안해하면서)</p> <p>성규 : 미안해... 몰랐어... 나는 태호한테 말 잘린 것만 생각했지... 내가 네 말을 잘랐을 줄은 몰랐어...</p>	
<p>아나운서 : 자. 그럼 너희들은 뭐가 문제였을까?</p> <p>태호 : (시무룩한 말투로) 결국 다 똑같은 문제였네요...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대화에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 줄은 몰랐어요.</p>	

[개선 상황]

<p>아나운서 : 그렇지? 대화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볼까요?</p>	
<p>(성규와 민우는 청소 중 장난을 치고 있다. 태호는 성규와 민우를 흘깃 쳐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쉰 다음 청소를 멈추고 말한다)</p> <p>태호 : (약간 불만에 쌓인 듯한 표정으로) 야! 왜 나만 청소해? 좀 나눠.</p> <p>성규 : (어리둥절한 표정) 뭘?</p> <p>태호 :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닦아. 난 교실 앞뒤 할게.</p> <p>성규 : (어이없어 하며)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가 가장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뒤로 옮</p>	 <p>태호, 성규, 민우 이야기</p> 

<p>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된다고.</p> <p>태호 : 같이 한 군데만 하니깐 빨리 안 끝나는 것 같아서. 나눠서 해야 빨리 끝나지.</p> <p>성규 : 그래도 네 맘대로 청소 구역을 나누는 건 좀 그래. 바닥 쪽 청소가 제일 힘들다고.</p>	
<p>(성규 옆쪽에 서서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민우. 뭔가 좋은 생각이 난 듯 눈을 크게 뜨며)</p> <p>민우 : (조심스럽게) 야... 그럼 이건 어때?</p> <p>성규 :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p> <p>민우 : 일단, 태호가 말한 대로 각자 맡은 구역 청소하고, 나랑 태호 끝나자마자 (성규를 가리키며) 너를 도와줄게.</p> <p>성규 : 좋아, 난 콜!</p> <p>태호 : (빗자루를 번쩍 들며) 나도 콜! 우리 빨리 끝내고 집 좀 가자. 가는 길에 떡볶이도 좀 먹고.</p> <p>민우 : (소심한 액션으로) 그건 나도 콜!</p> <p>태호, 성규, 민우가 신나게 다시 청소를 시작한다.</p> <p>(다음 화면 활용을 위해 배경 소리 없이 5초간 신나게 청소하는 상황영상 지속)</p>	  

[최종 마무리]

<p>아나운서 : 어떤가요, 말차례 때문에 생긴 대화 문제가 해결된 것 같나요? 태호, 성규, 민우의 대화가 이렇게 변화한 것은, 상대가 말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다 같이 조화롭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p> <p>(애니메이션 효과) 캐치볼 하는 태호, 성규, 민우</p> <p>태호, 민우가 순서대로 서 있고, 태호가 민우에게 공을 던진다. 민우는 잡으려고 뛰어오르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성규가 한 발 앞으로 점프해 공을 가로챈다. (화면에 큰 빨간색 'X'가 떴다 사라짐.)</p> <p>태호 민우, 성규가 순서대로 서 있고, 태호→민우→성규→태호 순으로 공을 던지고 받는다. (화면에 큰 빨간색 'O'가 떴다 사라짐.)</p> <p>아나운서 : 대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캐치볼을 할 때, 중간에서 공을 가로채면 안 되듯이 대화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가 말을 마치기를 잘 기다려서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p>	 <p>"대화는 캐치볼이다"</p>  <p>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화롭게 참여</p>
---	---

1.3. 학습지 (학생용)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줌.”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한다.
-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대화 중에 친구가 자신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말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와 성규는 무슨 일 때문에 다투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성규가 화가 난 이유를 대화 방식에서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태호 :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닦아. 난 교실 앞뒤 할 테니까.

성규 : (아이없어 하며)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태호 : (말 자르며, 빗자루로 책상을 탁탁 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데만 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지 빨리 끝나지.

3. 태호와 성규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민우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바람직한 대화 전략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 봅시다.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세 명이 한 모듬이 되어, 다음 절차에 따라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찾아봅시다.

(1) 태호와 성규, 민우가 다투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써서 정리해 봅시다.

(2)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듬원이 각각 태호, 성규, 민우의 역할을 맡아 대화해 봅시다.

(3)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모듬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영상을 다 본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전략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적용하기]

1.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방식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대화해 봅시다. (단, 대화를 녹음할 것.)

2. 녹음한 대화를 들어 보면서,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하였는지 평가해 봅시다.

3. 이번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발표해 봅시다.

1.4. 학습지 (교사용)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한다.
-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청소년들의 또래 간 일상 대화를 살펴보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화 방식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대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본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대화 순서 교대를 성취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다룬 경우는 물론이고, 대화 순서 교대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를 다룬 성취 기준의 경우 수업 상황에 맞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초등학교 3~4학년군</p>	<p>(4) 말차례를 지키면서 바른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p> <p>대화에서 말차례는 대화 전개 과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화에서는 말차례의 기본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말차례 지키기를 비롯하여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면, 대화로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u>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말차례를 지켜 참여하며, 대화의 상대, 목적, 장소에 따른 기본 예의를 지키도록 지도한다.</u>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등 말 차례를 지키면서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대화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p>
<p>중학교 1~3학년군</p>	<p>(8)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p> <p>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대화하는 목적이나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목적이나 상대에 따라 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달리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대화의 주목적이 정보 소통인지 관계 발전인지를 고려하면서 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목적이나 상대에 따른 다양한 대화 장면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대화 자료를 가지고 지도한다. 대화의 상황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판단하고, 상대방과의 친밀도,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고려하며, 상대방의 관심 분야, 성격과 가치관 등을 생각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대화 방식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대화의 목적 외에 대화 참여자의 성격, 직업, 경험과 지식, 기호, 자기 노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대화 방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와 소통을 통하여 의미 공유를 하면서 유익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p>

	다. 특히 가족의 건강한 대화 생활이 대인 화법의 기초임을 깨닫고 가족 대화가 부족한 현대에 가족 대화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가족 대화의 회복에도 유의하여 지도한다.
국어 I	<p>(1)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한다.</p> <p>상황과 대상에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면 대화의 원리와 우리말의 언어 예절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손성의 원리나 <u>순서 교대 원리</u> 등 <u>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대화 원리</u>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표준 화법의 내용 중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사말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감사, 사과, 위로, 축하 등과 관련된 언어 예절을 익혀야 한다. 대화의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의 처지와 감정을 배려하면서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p>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내가 말하는 중간에 친구가 자꾸 끼어들어 대화가 자꾸 끊겼던 경험이다.

2. 대화 중에 친구가 자신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느껴져 불쾌했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대화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 영상을 자신의 대화 경험과 관련지으며 볼 수 있게 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와 성규는 무슨 일 때문에 다투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청소 구역을 나누는 일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



2.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성규가 화가 난 이유를 대화 방식에서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태호 :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닦아. 난 교실 앞뒤 할 테니까.

성규 : (어이없어 하며)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태호 : (말 자르며, 빗자루로 책상을 탁탁 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데만 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지 빨리 끝나지.

→ (예시 답안) 태호가 성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규의 말을 중간에 잘랐기 때문이다.

3. 태호와 성규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민우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민우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민우의 말을 계속 자르며 민우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않았기 때문이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원인 해설 영상을 보기 전에 태호와 성규의 대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대화 방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청소 구역의 설정 등 대화 내용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영상의 주제와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두고 대화 방식에서 문제를 찾도록 지도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 봅시다.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세 명이 한 모듬이 되어, 다음 절차에 따라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찾아봅시다.

(1) 태호와 성규, 민우가 다투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써서 정리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자르지 않는다 등.

(2)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듬원이 각각 태호, 성규, 민우의 역할을 맡아 대화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친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후 자신의 말 차례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또, 다른 친구가 말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말을 줄이거나 정리하면서, 말차례를 넘겨주어야 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모둠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모둠별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스스로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즉, ‘개선 상황’을 유일한 대안적 대화 방식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하는 사례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준비한 개선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 진행도 가능하다.

※ 영상을 다 본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방식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적용하기]

1.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방식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대화해 봅시다. (단, 대화를 녹음할 것.)

→ (예시 답안) 생략

2. 녹음한 대화를 들어 보면서,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하였는지 평가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이번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발표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를 해 보니, 대화가 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았다.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은 녹음된 자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했는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자신의 대화를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후 실제 대화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이 자신의 대화를 메타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감적 경청

: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2.1. 개발 의도 및 취지

□ 개발 의도와 취지 : 이 자료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듣기와 말하기 방식을 성찰해 보도록 한다.

□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은 단순히 듣는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면서 들으려는 대화 참여자의 태도에 대한 것이며,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과정에서의 반응은 곧 말하기로 이어진다. 결국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고, 상대방 처럼 느끼고 생각해 볼 때 가능한 것이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말하려는 태도는 상대 참여자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공감적 경청의 특성, 실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공감적으로 듣는 것은 대화에서 상대 참여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본적 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본적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결국 상대 참여자의 입장에서 감정, 사고 등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말하기에 불과하며, 참여자가 서로 자기중심적 말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대화가 아니라 대화로 위장된 독백일 뿐이다. 청소년들의 대화 실태를 조사해 보면 친구가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때,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신의 실수를 감싸주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공감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공감적 경청을 의사소통의 이로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특히 또래 집단과의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적 경청의 방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또래 집단 의사소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에 집중하지 않아 속상해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담긴 상황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시작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또 일상의 학교생활에서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상대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는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마무리에서는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공감하는 것은 ‘안아 주기’와 같다는 비유를 통하여, 공감은 상대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감싸 체온을 나누는 것과 같은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2. 시나리오






[도입]

<p>아나운서 포함 네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 아나운서가 가운데서 말을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p> <p>아나운서 : (목청을 가다듬으며) 음음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할...</p> <p>아나운서 : 저...저기? 애들아? 애들아!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불쌍한 표정)</p>	
<p>아나운서 : 여러분 혹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지 않거나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나요? 태호와 유진이도 이런 문제로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p> <p>(화면 위쪽에서 패드가 나오고, 패드 전원이 켜진다.) (패드 화면에 달린 입체 글자 제목이 ‘단어별로’ 내려온다.)</p> <p>“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p>	


[문제 상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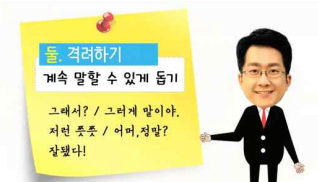
등장인물	<p>* 태호 : 약간 자기중심적, 현실적</p> <p>* 성규 : 감정적, 솔직함.</p>
시/공간 배경	교실

상황	태호는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입상해서 문화상품권 2만원을 받았다. 태호는 자신의 입상 소식을 성규에게 전하려고 교실에 앉아있는 성규에게 말을 건다.
----	---



<p>성규는 집에 갈 준비를 하려는 듯 가방을 메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휴대 전화 게임을 하고 있음. 태호도 가방을 챙기고 있음.</p> <p>태호 : (밝고 기분 좋은 얼굴로) 야.</p> <p>성규 : (휴대 전화 게임을 하고 있다.) ...</p> <p>태호 : 야! (성규를 툭툭 친다.)</p> <p>성규 : (게임에 계속 집중)</p> <p>태호 : (약간 짜증 난 말투로) 아! 귀먹었냐?</p> <p>성규 : (건성으로 대답하며) 어, 어...</p> <p>태호 : (신나서) 야, 야. 그, 독서 감상문 대회 있잖아.</p> <p>성규 : (별 표정 없이) 응.</p> <p>태호 : 너 그거 썼냐?</p> <p>성규 : (심드렁해 하며) 아니?</p> <p>태호 : (입이 근질근질한 표정으로 성규의 얼굴을 살피며) 나 그때 썼는데...</p> <p>성규 : (무심하게) 응, 근데?</p> <p>태호 : 그걸 내가 댔단 말이지. 문상 2만원! (엄지를 척 세우며) 짱이지 않냐?</p> <p>성규 : (무심하게) 아이, 난 또 뭐라고...</p> <p>(게임 캐릭터가 죽었음) 어, 어어... 아, 망했다.</p> <p>(자리에 일어나며) 다 끝났냐? 가자.</p> <p>태호 : (떨떠름하고 무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 뭐야 내 말 듣기나 한 거야? 맛있는 거나 쏘려 했더니.</p>	    
---	--


[원인 해설 1]

<p>패드 화면 위에 두 개의 만화 칸.</p> <p>(좌) 무신경한 성규의 모습 / (우) 서운해하는 태호의 얼굴.</p> <p>태호 얼굴 위로 생각 풍선 [성규랑 더 이상 말하기 싫다.]</p> <p>우측 하단에 아나운서 등장. 패드 화면을 쳐다봄.</p> <p>아나운서 : 두 친구들의 대화를 봤는데요, 태호의 표정이 뭔가 섭섭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왜 성규랑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거죠? 태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p> <p>(아나운서 뒤로 만화 칸, (좌) 무신경한 성규의 모습 / (우) 서운해하는 태호의 얼굴)</p>	
--	---




<p>아나운서 : (패드 화면을 향해 태호를 부르며) 태호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뭐 서운한 거 있니?</p> <p>좌측 하단. 태호 픽토그램 등장</p> <p>태호 : 저 상황에서 서운하지 않은 게 이상하죠. 성규 모습 좀 보세요. 사람이 말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 진짜 저럴 때는 말도 하기 싫다니깐요!</p> <p>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며 태호 픽토그램 퇴장.</p>	 
<p>아나운서 : 그랬었군요. 태호는 성규가 자기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서운했군요.</p> <p>[자막] 하나, 집중하기 / 눈 맞추며 집중해서 듣기</p> <p>서로 대화를 나눌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자막] 둘, 격려하기 / 계속 말할 수 있게 돕기</p> <p>또 상대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하고, 공감, 동정, 놀라움, 기쁨 등을 짧게 나타내면서 상대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p> <p>계속 말할 수 있게 돕는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p> <p>- 그래서? / - 그렇게 말이야. / - 저런, 찻찻. / - 어머, 정말? / - 잘됐다.</p>	 
<p>아나운서 : 그럼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볼까요?</p>	

[문제 상황 2]



등장인물	유진, 희주
시/공간 배경	교실
상황	유진은 요새 공부가 잘 안 되어 희주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p>장면 2</p> <p>유진 : 아, 나 요새 공부가 너무 안 돼.</p> <p>희주 : 왜?</p> <p>유진 : 수학은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영어 단어는 맨날 모르는 것만 튀어나오고.</p> <p>희주 : 그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영어 단어도 꼬박꼬박 외우고, 수학도 응용문제 많이 풀면 뭐가 어렵냐.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엄살은...</p> <p>유진 : (한숨을 쉬며 희주를 짜려보며, 표정 일그러진다.)</p> <p>희주 : 표정이 왜 그따구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니까 이런 말 해주지. 내가 너였으면 수다 떨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p>	 





<p>겠다.</p> <p>유진 : (화가 나서) 됐다. 내가 너랑 뭔 얘기를 하나? 잘난 척은... (헛 나가버린다.)</p>	
---	---

[원인 해설 2]

<p>패드 화면 위에 두 개의 만화 칸.</p> <p>(좌) 화가 난 듯한 유진 얼굴 / (우) 어이없다는 듯한 희주 얼굴</p> <p>아나운서 : 유진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속이 상해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희주는 마음도 몰라주고 바로 충고를 해버렸군요.</p> <p>유진 얼굴 위로 생각 풍선 뜨며, [생각 풍선] 그래 너 잘났다! 아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구나!</p>	 
<p>아나운서 : 이렇게 친구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대화에 갈등이 생기기 쉽겠죠? 친구가 속상해할 때는 먼저 친구의 마음을 읽으며, 공감하는 말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p> <p>[자막] 셋 반영하기 / 마음 읽고 바꿔 말하기</p> <p>예) A: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 걱정이야. B: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들지.</p>	

[개선 상황]

<p>장면 1</p> <p>성규는 집에 갈 준비를 하려는 듯 가방을 메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휴대 전화 게임을 하고 있음. 태호도 가방을 챙기고 있음.</p> <p>태호 : (밝고 기분 좋은 얼굴로) 야.</p> <p>성규 : (휴대 전화 게임을 하고 있다.) ...</p> <p>태호 : 야야 (성규를 톡톡 친다.)</p> <p>성규 : 어? 왜? (게임을 멈추고, 태호를 바로 쳐다본다.)</p> <p>[자막] 눈 맞추며 집중해서 듣기</p> <p>태호 : (신나서) 지난번에 그, 독서 감상문 대회 있잖아.</p> <p>성규 : 어.</p> <p>태호 : 너 그때 썼냐?</p> <p>성규 : 아니? 근데 왜?</p> <p>태호 : (입이 근질근질한 표정으로 성규의 얼굴을 살피며) 나 썼는데...</p>	 
---	---

<p>성규 : (감탄하며) 너 설마? 상 탄 거야? 오, 대단한데?</p> <p>[자막]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할 수 있게 돕기</p> <p>태호 : (더 신나서) 그치?</p> <p>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기분이다. 내가 쓸게.</p> <p>성규 : 아싸!</p> <p>태호 : 편의점 갈래?</p> <p>성규 : 그래.</p> <p>태호 : 편의점에서 문상이 되냐?</p> <p>성규 : 글썄.</p> <p>태호 : 안 되면 뭐, 형이 쓸게.</p> <p>성규 : 오오.</p> <p>둘이 신나서 가방 메고 웃으며 교실을 나간다.</p>	
<p>장면 2</p> <p>유진 : 아... 나 요새 공부가 너무 안 돼.</p> <p>희주 : 왜?</p> <p>유진 : 수학은 해도 느는 거 같지도 않고, 영어는 맨날 모르는 것만 튀어 나오고.</p> <p>[자막] 친구가 한 말을 같은 의미가 되게 바꿔 말하기</p> <p>희주 : 그치? 수학은 나름대로 했는데 계속 틀리고, 영어 단어도 외워도 외워도 끝도 없고...</p> <p>유진 : 내 말이.</p> <p>희주 : 아, 맞다! 나 수학 문제집 하나 새로 샀는데. 괜찮은 거 같아. 너도 풀어 봐. 도움이 좀 될 거야.</p> <p>유진 : 진짜? 고마워. 그 문제집 이름이 뭔데?</p> <p>희주 : 고고씽 수학이었나?</p> <p>유진 : 아, 오늘 사러 가야겠다.</p> <p>희주 : 같이 갈래?</p> <p>유진 : 그래, 같이 가자.</p> <p>(자연스럽게 조언을 하면서 마무리.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p>	  

[마무리]

[그림]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안아 주는 픽토그램. 안아 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팔처럼 상대를 감싸 안아준다.

[자막] 공감은 안아 주기다.

아나운서 : 대화에서 공감은 함께 마주 보며 따뜻하게 감싸는 ‘안아 주기’와 같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조언이나 충고를 하고 싶어도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일단은 먼저 잘 들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들을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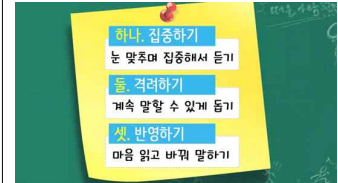
[자막] 앞에 붙었던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이기

하나, 집중하기 / 눈 맞추며 집중해서 듣기

둘, 격려하기 / 계속 말할 수 있게 돕기

셋, 반영하기 / 마음 읽고 바꿔 말하기

“공감은 안아주기다”



2.3. 학습지 (학생용)

2.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내 말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말해 봅시다.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과 내 느낌을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 ‘장면 1’을 보고 답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가 성규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섭섭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성규가 태호와의 대화에서 보인 행동 중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해 봅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친구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감적 경청의 방법 생각해 보기]

1. 이 상황에서 성규가 태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 봅시다.



태호가 말을 하지만 성규는 게임만 할 뿐 태호를 바라보지 않는 장면

2. <보기>와 같이 친구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적어 봅시다.

<보기>

관심의 표현: 그래서? 그런데?

- 1) 공감의 표현: _____
2) 기쁨의 표현: _____
3) 동정의 표현: _____
4) 놀라움의 표현: _____

- ‘장면 2’를 보고 답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유진이가 회주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다음은 ‘장면2’의 대화 장면을 옮긴 것입니다. 회주가 한 말 중 유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밑에 줄을 그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유진 : 아, 나 요새 공부가 너무 안 돼.

회주 : 왜?

유진 : 수학은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영어 단어는 맨날 모르는 것만 튀어나오고.

회주 : 그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영어 단어도 꼬박꼬박 외우고, 수학도 응용문제 많이

풀면 뭐가 어렵냐.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엄살은...

유진 : (한숨을 쉬며 희주를 짜려보며, 표정 일그러진다.)

희주 : 표정이 왜 그따구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니까 이런 말 해 주지. 내가 너였으면 수다 떨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겠다.

유진 : (화가 나서) 됐다. 내가 너랑 뭘 얘기를 하나? 잘난 척은... (휙 나가버린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속상해 하는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듣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감하며 말하는 방법 생각해 보기]

1. 여러분이 만약 유진이라면 이 상황에서 희주가 어떻게 반응하며 말해 주길 바랄지 말해 봅시다.
2.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 봅시다.

<규칙>

1. 상대방의 말에 비판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기.
2.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대가 한 말을 자기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보기>

친구: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들지?”

- 1) 친구: “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해서 큰일이야.”

나:

- 2) 친구: “밤마다 자꾸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부어.”

나:

- 3) 친구: “동아리 활동 준비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정신이 없어.”

나: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최근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주제로 옆 사람과 5분 내외로 대화를 해 봅시다. 이때 이 장면을 녹화해 봅시다.

2. 녹화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을 평가해 봅시다.

방법	평가
1.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들으며 대화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2.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관심을 표현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3.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말을 해 주었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3.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2.4. 학습지 (교사용)

2.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이 영상과 학습지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듣기와 말하기 방식을 성찰해 보도록 지도한다.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이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교육과정에서 공감적 듣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교수-학습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중학교 1~3학년군</p>	<p>(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p> <p>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황이나 맥락,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하여 예의와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 말 문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은 상황을 살피고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청자 반응을 하면서 경청하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소통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며, 상대의 말을 수용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믿음과 유대감이 형성 되도록 우호적 태도로 말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실제 대화, 온라인 대화, 작품 속 여러 대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찾고, 공감적 소통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p>
<p>국어 I</p>	<p>(2)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p> <p>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적 듣기가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공감적 듣기를 실제로 수행하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p>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내 말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친구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들을 때, 친구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때, 친구가 내 말에 맞장구를 쳐줄 때 등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 때의 상황과 내 느낌을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대화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 영상을 자신의 대화 경험과 관련지으며 볼 수 있게 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 ‘장면 1’을 보고 답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가 성규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섭섭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시 답안) 성규가 자기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2. 성규가 태호와의 대화에서 보인 행동 중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며 집중해서 듣지 않은 점,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 자기가 하고 있던 게임을 계속하며 말을 들은 점 등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태호가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성규가 게임을 하는 것 등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이 영상의 주제와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두고 대화 수행 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지도한다. 성규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호가 말을 건 것을 문제 삼

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게임을 하는 중이라고 해도 친구가 말을 걸었을 때에 무신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친구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감적 경청의 방법 생각해 보기]

1. 이 상황에서 성규가 태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 봅시다.



태호가 말을 하지만 성규는 게임만 할 뿐 태호를 바라보지 않는 장면

→ (예시 답안) 게임을 멈추고 태호를 쳐다보며 말을 듣는다, 태호의 말에 관심을 나타내는 표정, 몸짓, 말을 하며 듣는다 등

2. <보기>와 같이 친구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적어 봅시다.

<보기>

관심의 표현: 그래서? 그런데?

- 1) 공감의 표현: 그러게 말이야, 정말 그렇고말고
- 2) 기쁨의 표현: 정말 잘됐다. 멋지다.
- 3) 동정의 표현: 저런 쫓쫓, 저걸 어째?
- 4) 놀라움의 표현: 어머, 정말?

● ‘장면 2’를 보고 답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유진이가 회주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시 답안) 속이 상해 말을 했는데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바로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분석하고 충고를 해서

2. 다음은 ‘장면2’의 대화 장면을 옮긴 것입니다. 회주가 한 말 중 유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밑에 줄을 그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유진 : 아, 나 요새 공부가 너무 안 돼.

희주 : 왜?

유진 : 수학은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영어 단어는 맨날 모르는 것만 튀어나오고.

희주 : ① 그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영어 단어도 꼬박꼬박 외우고, 수학도 응용문제 많이 풀면 뭐가 어렵냐.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엄살은...

유진 : (한숨을 쉬며 희주를 째려보며, 표정 일그러진다.)

희주 : ② 표정이 왜 그따구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니까 이런 말 해 주지. 내가 너였으면 수다 떨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겠다.

유진 : (화가 나서) 됐다. 내가 너랑 뭘 얘기를 하나? 잘난 척은... (휙 나가버린다.)

→ (예시 답안) ①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잘난 척을 하고 있음.

② 친구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방식대로 충고를 하고 있음.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희주가 충고를 해 주는데 이것을 잘난 척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유진이가 문제가 있다고 반응하는 경우, 충고로 보기에 희주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두 사람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도록 지도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속상해 하는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듣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감하며 말하는 방법 생각해 보기]

1. 여러분이 만약 유진이라면 이 상황에서 희주가 어떻게 반응하며 말해주길 바랄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그렇구나, 힘들겠다.

2.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 봅시다.

<규칙>

1. 상대방의 말에 비판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기.
2.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대가 한 말을 자기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보기>

친구: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들지?”

1) 친구: “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해서 큰일이야.”

나: (예시 답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이구나.”

2) 친구: “밤마다 자꾸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부어.”

나: (예시 답안) “밤에 먹는 게 맛있기는 한데 자꾸 먹으면 얼굴이 부으니 걱정이겠다.”

3) 친구: “동아리 활동 준비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정신이 없어.”

나: (예시 답안) “동아리 활동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어서 힘들겠구나.”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 뒤 단순히 ‘-(겠)구나’를 붙여 표현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자기 말로 바꿔 공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 주는 좋은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최근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주제로 옆 사람과 5분 내외로 대화를 해 봅시다. 이때 이 장면을 녹화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2. 녹화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을 평가해 봅시다.

방법	평가
1.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들으며 대화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2.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관심을 표현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3.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말을 해 주었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예시 답안) 생략

3.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말을 집중하며 듣고, 상대방 말에 관심을 나타내고 상대방 감정에 공감해 주면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에게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공감적으로 듣는 것이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본적 태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 공감적 경청을 의사소통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공감적 경청의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화와 무관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며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 역시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비언어적 표현

: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3.1. 개발 의도 및 취지

□ 개발 의도와 취지: 세 번째 자료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간과하기 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래 대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며, 그 소통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해 보도록 한다.

□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사용과 의미 전달력은 언어적인 표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Birdwhistell(1970:89)에 따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 문화권에서도 대화의 35%만이 말로써 이루어지고 나머지 65%는 비언어적 수단에 의하여 소통된다. 또 Scherer(1982:65)는 의사소통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7%만이 언어에 의해 전해지는 반면, 메시지의 93%는 목소리의 크기나 얼굴 표정에 의해 전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비록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언어적 표현만으로 온전히 소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뒷받침한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성, 실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교실에서의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식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사회의 환경을 통해 내면화되며 개인적·문화적 속성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표현은 본능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되기 쉽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은 일정한 양식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청소년들은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관하여 성찰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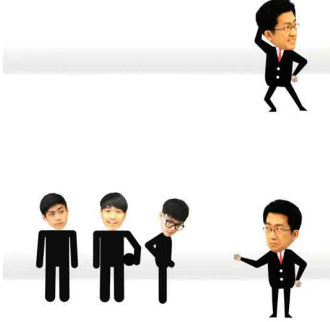

□ 자료 내용의 개괄

이에 세 번째 자료는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에 머리를 맞은 아나운서를 향하여 세 명의 학생이 ‘죄송해요!’라는 사과를 말한 각양각색의 말투로 전하는 상황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하여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청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일상의 학교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비언어적 행위(눈빛, 말투, 시선, 행동 등)가 서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친구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무리에서는 ‘대화는 퍼즐’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말’뿐만이 아니라 몸동작이나 눈빛, 말투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제대로 맞춰져야 비로소 완성됨을 강조한다.

3.2. 시나리오

[도입]

<p>아나운서 : (분위기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오프닝 멘트 시작) 여러분,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때 축구공이 날아와 아나운서 캐릭터 머리에 맞는다.) 아야! 아이고, 내 머리아!</p> <p>(머리에 커다란 혹이 생긴 후 화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 모습) 아니, 대체 누구야?</p>	
<p>민우, 태호, 성규 픽토그램이 차례차례 등장하며 똑같이 “죄송해요.”라고 말하는데, 비언어적 표현은 모두 제각각이다.</p> <p>얼굴 표정을 확대하고 목소리를 약간 천천히 처리해서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나도록 강조.</p> <p>민우 : (정중하고 진실되게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과 목소리로) 죄송해요.</p> <p>태호 : (킁킁 웃으면서 놀리듯이 장난기 있는 목소리로) 죄송해요.</p> <p>성규 : (성의 없는 목소리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대충 지나가는 말투로) 죄송해요.</p>	
<p>아나운서 : (어이없어 하며) 너희들 진짜 미안한 거 맞아? 아이고 머리아... (잠시 정신을 차리고)</p> <p>(화면 위쪽에서 패드가 나오고, 패드 전원이 켜진다.)</p> <p>(패드 화면에 달린 입체 글자 제목이 ‘단어별로’ 내려온다.)</p> <p>“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p> <p>아나운서 : 여러분, 대화를 할 때 표정이나 태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친구들의 상황을 살펴볼까요?</p>	

[문제 상황]

등장인물	희주, 민하, 태호, 성규
시/공간 배경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복도 계단으로 이동
상황	성규와 희주는 앞뒤에 자리한 같은 반 친구 사이이다.

장면 1

성규가 계속해서 책상을 볼펜으로 탁탁 치며 무의식적으로 소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희주 : (짜증 어린 표정을 지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힐끗하고 성규를 한번 돌아본다)

성규 : (눈썹을 치켜세우며 짜려보는 눈으로) 뭐?

희주 : (무시해야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책을 향한)

성규 :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 재수 없게. 뭘 짜려봐?

희주 : (떨떠름한 표정으로 힐끗 뒤를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좀 보면 안 돼?

성규 : (억울해하는 말투로) 내가 뭐 어쨌는데.

희주 : (한숨을 푹 내쉰다)

성규 : (크게 욕박지르며) 뭐? 어쨌라고!

희주 : (짜증 내며 책상 위에 보던 책을 '탁' 하고 소리 나게 던지며 쏘아붙이는 목소리로) 아, 됐어! 말을 말자.

벌떡 일어나 희주는 교실을 나간다.



장면 2

교무실을 나오는 민하. 풀이 죽어 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여러 친구들(남, 여)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민하를 쳐다본다. 복도 로비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민하. 게시판 정리를 하던 태호와 눈이 마주친다.

태호 : (민하를 힐끗 보고 다시 게시판 정리에 집중한다.)

민하 : (화내는 목소리로) 아.

태호 : 왜.

민하 : 왜 쳐다봐?

태호 : (힐끗 뒤를 돌아보며 무시하는 말투로) 너 안 봤어.

민하 : (짜증 내며 화난 표정으로 소리 지르듯) 봤잖아!

태호 : (비웃는 투로) 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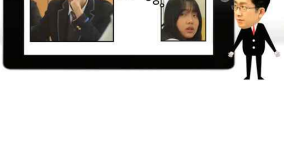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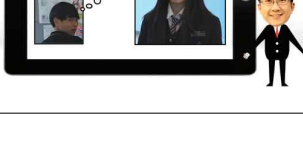



민하 : (화난 얼굴로 태호를 향해 매우 빠르고 큰 목소리로 쏘아대며) 네가 기분 나쁘게 나 쳐다봤잖아!


태호 : (힐끗 뒤를 돌아보며 짜증 나는 표정으로 민하보다 더 큰 목소리로) 뭘 헛소리야?

민하 : (말도 못하고 억울한 표정)




[원인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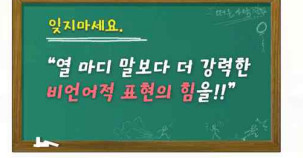
<p>앞 상황에서 화면 점점 작아지며, 아나운서 등장.</p> <p>아나운서 : 아니,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친구들이 기분 나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그 이유를 직접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장면 1]</p> <p>아나운서 : 희주는 아까 왜 그렇게 성규를 봤어요?</p> <p>희주 : 소리가 좀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그냥 짜증이 좀 나서 쳐다봤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짜증 내는 말투로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넘어가주려고 했다고요.</p> <p>아나운서 : 그럼, 성규는 왜 그렇게 책상을 탁탁 쳐서 소리를 냈나요?</p> <p>성규 : 시험 때문에 좀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가 완전 짜려보잖아요. 신경 쓰이게. 그래 놓고선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눈빛이.</p>	 <p>Q. 희주는 아까 왜 그렇게 성규를 봤어요?</p>  <p>Q. 성규는 왜 그렇게 책상을 탁탁 쳐서 소리를 냈나요?</p>								
<p>[장면 2]</p> <p>아나운서 : 민하와 태호는 아까 왜 그렇게 화가 났나요?</p> <p>민하 : 힐끗 보는 게 왠지 그렇잖아요. 나한테 무슨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봤냐니까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것도 기분 나빴어요. 제가 과민반응 했다는 듯한 말투잖아요.</p> <p>태호 : 그렇게 많이 쳐다본 것도 아닌데 화를 내니까 저도 덩달아 화가 났죠. 무슨 의도가 있어서 쳐다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앞에서 오면 당연히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내가 시비라도 걸려고 했다는 듯이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p>	 <p>Q. 민하와 태호는 아까 왜 그렇게 화가 났나요?</p> 								
<p>아나운서 : 아하, 친구들은 모두 뭔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기분이 나빴던 거였군요.</p>									
<p>[화면] 아나운서의 말과 함께 문제 장면을 재생하며 생각 풍선</p>									
<table border="1"> <tr> <td>희주의 짜려보는 눈빛</td><td>[성규 : '뭐 볼만 있어?']</td></tr> <tr> <td>성규의 큰 목소리와 짜증 섞인 말투</td><td>[희주 : '뭘 잘했다고 짜증이야!']</td></tr> <tr> <td>태호의 성의 없는 말투</td><td>[민하 : '재가 날 무시하네!']</td></tr> <tr> <td>민하의 쏘아대는 듯한 말투</td><td>[태호 : '왜 괜히 시비야?']</td></tr> </table>	희주의 짜려보는 눈빛	[성규 : '뭐 볼만 있어?']	성규의 큰 목소리와 짜증 섞인 말투	[희주 : '뭘 잘했다고 짜증이야!']	태호의 성의 없는 말투	[민하 : '재가 날 무시하네!']	민하의 쏘아대는 듯한 말투	[태호 : '왜 괜히 시비야?']	
희주의 짜려보는 눈빛	[성규 : '뭐 볼만 있어?']								
성규의 큰 목소리와 짜증 섞인 말투	[희주 : '뭘 잘했다고 짜증이야!']								
태호의 성의 없는 말투	[민하 : '재가 날 무시하네!']								
민하의 쏘아대는 듯한 말투	[태호 : '왜 괜히 시비야?']								
<p>아나운서 : 이렇게 대화할 때는 말의 내용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몸짓 등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전달됩니다.</p>									
<p>아나운서 : 다음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어떤 의미를 전해줄까요?</p>									
<p>[화면] 화면분할로 영상 1, 2, 3 순차적으로 클로즈업을 먼저 넣고, 2분할 화면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본 후의 민하의 생각을 생각주머니에 넣기</p>									
<p>(영상1) ▶ 눈빛과 표정</p>									

<p>: 짜증 어린 표정, 찌려보거나 노려보는 모습. 청자(정면+민하)를 위아래로 훑어봄 (민하 생각주머니) : 기분 나쁜가?</p> <p>(영상2) ▶ 손동작과 자세 : 계속 연필이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거나 한쪽 다리로 서서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진 어깨, 건들거리는 모습. 고개를 청자(민하)의 반대쪽으로 돌린 모습 (민하 생각주머니) : 나랑 말하기 싫은가?</p> <p>(영상3) ▶ 말투 : 입에 포커스를 맞춤. 대사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모습 (민하와 2분할 화면+옆모습 클로즈업) : '뭐?', '그래서?', '어쩌라고?' 등 호의적이지 않은 말투의 대사들 (민하 생각주머니) : 나한테 화났나?</p>	
<p>아나운서 : 오해 없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표현이 참 중요하겠군요. 눈빛과 표정, 자세와 목소리 등은 말보다 더 강력한 뜻을 전해 주니까요.</p>	

[마무리]

<p>희주 : 나 이 굴 먹어도 돼?</p> <p>민하 : 응. 먹어도 돼.</p> <p>(이후 '다른 곳을 쳐다보고 '반대쪽으로 약간 돌린 몸', '몸동작과 눈빛 영상이 퍼즐 모양으로 한 화면이 맞춰짐.)</p> <p>(온전한 영상으로)</p> <p>희주 : 나 이 굴 먹어도 돼?</p> <p>민하 : (굴을 손으로 감싸며) 응. 먹어도 돼.</p> <p>아나운서 : 아, 민하는 사실 굴을 주기 싫었던 거군요.</p>	
---	--

[최종 마무리]

<p>아나운서 : 대화는 퍼즐입니다. 대화는 '말'뿐만이 아니라 몸동작이나 눈빛, 말투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맞춰야 비로소 완성됩니다.</p> <p>[자막] "말" + "비언어적 표현들"</p> <p>나의 눈빛, 자세, 작은 몸짓 하나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p> <p>아나운서 : (강조하듯이 힘줘서 멘트) 잊지 마세요! 열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비언어적 표현의 힘을!</p>	 
---	---

3.3. 학습지 (학생용)

3. 올바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어떤 말이나 욕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은근히 기분이 상했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혹은 별다른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던 경험은 없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여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희주와 성규의 이야기>

1. 희주가 성규를 쳐다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성규는 무엇 때문에 희주에게 화가 났을까요?
3. 다음 대화 상황을 다시 보면서, 희주와 성규의 눈빛과 말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희주와 성규가 서로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민하와 태호의 이야기>

4. 민하가 태호에게 화를 낸 이유를 떠올리며, 태호의 표정과 말투를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너 안 봤거든.



뭔 헛소리야?



※ 원인 해설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 까닭을 정리하여 봅시다.

5. 민하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나요?

6. 태호는 무엇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고 하였나요?

7. 희주, 성규, 민하, 태호가 서로 언짢아한 까닭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 다음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여 봅시다.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1. 아래 그림에서 대화 분위기가 어떠하다고 느꼈는지 말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봅시다.



2. 다음과 같은 표정과 몸동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p>(1) 표정</p> 	<p>이 표정은 상대방에게</p> <p>_____</p> <p>_____ 라는</p> <p>의미를 전달 수 있을 것이다.</p>
<p>(2) 자세</p> 	<p>이 자세는 상대방에게</p> <p>_____</p> <p>_____ 라는</p> <p>의미를 전달 수 있을 것이다.</p>

그림출처: John, Stewart 외 (2005)

※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3~4명이 한 모듬이 되어 '요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다음 아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말하는 나를 쳐다봐 주었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 주었음.
 -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옆 모듬 친구들을 힐끗힐끗 쳐다봄. 계속 다리를 떨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림.
-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시선, 자세, 말투나 행동 등에서 스스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는지 그 이유도 말하여 봅시다.
-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3.4. 학습지 (교사용)

3. 올바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청소년들의 또래 간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쉽다. 대화 상황에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며, 그 소통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교육적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요즘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투나 눈빛, 자세 등 비언어적 표현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본 영상과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성취 기준으로 명확하게 다루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자 반응’이나 ‘대화의 적극적인 참여’, ‘품위 있는 언어 생활’, ‘상황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한 수업에서도 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군	<p>(7) 상대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p> <p>대화는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고려하면서 반응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u>대화를 나눌 때 고개 끄덕임, 눈 마주침과 같이 몸짓과 표정으로 반응하고, 맞장구치기, 호기심을 갖고 적절하게 질문하기 등의 청자 반응을 통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u></p>
초등학교 3~4학년군	<p>(7)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한다.</p> <p>언어적 표현보다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 과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서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일상 대화 자료뿐만 아니라 친숙한 다양한 대중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무언극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u>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과 그들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연습하도록 한다.</u> 애니메이션의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p>
초등학교 5~6학년군	<p>(9)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p>

	<p>비속어 사용이 자연스럽고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운 말과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국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둔다. 일상 대화, 친구와의 대화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지키는 생활을 강조한다. 언어 예절에 대한 실천적 동기를 내면화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 등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u>언어생활의 품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의 형식과 기능을 익히고,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u></p>
<p>중학교 1~3학년군</p>	<p>(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p> <p>매체의 발달에 따라 언어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다. 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 자료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직접 발표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말과 글로만 발표할 때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의 효과 차이를 알고, 적절한 매체 자료를 발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구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매체 자료 이용 윤리, 인터넷 이용 윤리, 발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u>직접 발표할 경우 발표 상황과 맥락, 청중을 고려하고,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에도 유의하도록 지도한다.</u></p>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어떤 말이나 욕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은근히 기분이 상했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혹은 별다른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던 경험은 없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그 때의 상황을 설명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구체적인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행동이나 말투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또래 간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인의 대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말투로 인한 갈등 경험도 포함할 수 있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희주와 성규의 이야기>

1. 희주가 성규를 쳐다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예시 답안) 계속해서 볼펜으로 책상을 쳐서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2. 성규는 무엇 때문에 회주에게 화가 났을까요?

→ (예시 답안) 화난 듯 쳐다보아서

3. 다음 대화 상황을 다시 보면서, 회주와 성규의 눈빛과 말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회주와 성규가 서로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이유도 모르는데 짜증나는 듯 쳐다보는 회주의 눈빛, '뭐?'와 같이 신경질적인 성규의 말투와 눈빛, 별떡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는 회주의 행동 등으로 화가 났을 것이다.

<민하와 태호의 이야기>

4. 민하가 태호에게 화를 낸 이유를 떠올리며, 태호의 표정과 말투를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너 안 봤거든.



원 헛소리야?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원인 해설 영상을 보기 전에 회주와 성규, 태호와 민하의 대화에서 문제점을 먼저 찾아 보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비언어적 표현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기분이 상했던 경험을 충분히 떠올려 본 다음 동영상상을 시청하도록 유도한다. 비언어적 표현으로 인한 대화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 까닭을 정리하여 봅시다.

5. 민하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나요?

→ (예시 답안) 태호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 무성의한 대답(말투) 등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음

6. 태호는 무엇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고 하였나요?

→ (예시 답안) 단지 지나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본 것일 뿐인데 민하가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7. 희주, 성규, 민하, 태호가 서로 언짢아한 까닭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부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서로 오해를 함. 구체적인 이유나 생각을 말하지 않아서 등

※ 다음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여 봅시다.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1. 아래 그림에서 대화 분위기가 어떠하다고 느꼈는지 말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별로 좋은 대화 분위기는 아니다. 남학생인 태호의 행동에서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다. 책상 밖으로 뻗은 다리,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손동작, 무관심한 표정, 말투 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말하기 싫은가?’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2. 다음과 같은 표정과 몸동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p>(1) 표정</p> 	<p>이 표정은 상대방에게 → (예시 답안) <u>‘나는 무척 화가 났어.’ ‘나는 정말 싫어’</u> 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p>
<p>(2) 자세</p> 	<p>이 자세는 상대방에게 → (예시 답안) <u>‘나는 불만이 있어.’ ‘내 맘에 들지 않아’, ‘지루해’</u>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p>

그림출처: John, Stewart 외 (2005)

※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3~4명이 한 모둠이 되어 ‘요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다음 아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1)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예시 답안) 말하는 나를 쳐다봐 주었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 주었음.

(2)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 (예시 답안) 옆 모둠 친구들을 힐끗힐끗 쳐다봄. 계속 다리를 떨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림.

2.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시선, 자세, 말투나 행동 등에서 스스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는지 그 이유도 말하여 봅시다.

(예시 답안)

→ 말할 때 상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말하는 것 - 대화에 관심이 없고 딴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받아서

→ 한쪽 다리로 비딱하게 서있거나 앉아서 다리를 떨면서 듣는 자세 - 예의가 없어 보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어 오해를 사기 때문

→ ‘어쩌라고, 나대지 마’와 같은 말을 재미삼아 친구에게 하며, 장난처럼 툭툭 던지는 말투 -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서. 등

3.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자세, 눈빛, 말투 등이 기분 좋은 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앞으로 대화할 때에는 비언어적 표현에 신경을 써야겠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며 영상을 시청한 후 모둠별 토의를 통하여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평소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의 습관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 손짓, 몸짓, 말투 하나하나가 매우 강력한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 습관을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 유용한 활동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한 경험을 나누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둠 활동을 통해 찾도록 하는 수업을 계획해 볼 수 있다.

4. 공격적인 말

: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4.1. 개발 의도 및 취지

□ 개발 의도와 취지 : 이 자료는 비하, 조롱, 저주, 욕설 등 상대를 공격하는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공격적인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고 자신의 공격적 언어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공격적 언어 표현의 유형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언어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상대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 “너는 어때하다.”라며 함부로 단정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너는 게을러.”, “너는 나쁜 아이야.” 등과 같이 객관적인 관찰에 바탕을 둔 표현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단번에 규정하는 말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언어 표현이다. 특히 상대의 능력, 성품, 외모 등에 대해 놀리는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를 저주하는 언어 표현이다. “너 인생 망한다.”와 같이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아 말을 하는 것이다. 넷째, 상대를 차별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차별 표현으로는 성(性), 장애, 지역, 민족, 인종 등을 차별하는 말들이 있다.

□ 공격적 언어 표현의 폐해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 표현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 특히 개인의 자아 개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아 개념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말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공격적인 말을 할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 “너는 어때”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을 특정한 틀 안에 묶어매는 기능을 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은 비속어와 욕설과 함께 사용되어 자아 개념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저주하는 표현은 ‘자기실현적 예언’의 기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의사소통 방식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된다. 즉,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말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자아 개념과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은 개인의 삶에서 대화의 즐거움을 훼손하게 된다. 청소년 의사소통 문화의 이러한 부정적인 양상이 만연하게 되면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발표를 망친 후 모두가 모여 대화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발표 자료를 늦게 준비한 여학생과 발표 준비가 부실하여 실수를 한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주로 원망 섞인 공격을 받는다. 공격적인 말에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부정적 언어 표현을 섞어서 구성하였다. 모두 친구들의 대화를 보며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개선 장면으로 구성하지 않고 반성적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말을 들은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장면을 담았다. 무심코 한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4.2. 시나리오









[도입]


<p>(그래픽 효과) 화면 우측. 아나운서 등장.</p> <p>탁자 위에 놓여 있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생선을 발견.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생선을 들어 통째로 삼킨다. 잠시 후,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는지 객객거리며 목을 잡고 괴로워한다. 탁자에 놓인 물을 마시자 괜챻아진 듯 대사를 한다.</p> <p>아나운서 : (목소리 가다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려 본 경험 있으신가요? 가시는 아주 작지만 온통 신경이 쓰여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평소에 장난삼아 무심코 뱉은 한 마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p>	
<p>화면 위쪽에서 패드가 나오고, 패드 전원이 켜진다. 깜짝 놀라는 아나운서.</p> <p>패드 화면에 달린 입체 글자 제목이 효과음과 함께 내려온다.</p> <p>“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p>	
<p>아나운서 : 자, 모두 발표를 마치고 속상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p> <p>패드 화면 클로즈업되며 전체 화면으로 전환</p>	

[문제 상황]





<p>등장인물</p>	<p>*민우 : 발표를 망쳐 주눅이 들어 있다. 키가 좀 작다. (피해)</p> <p>*태호 : 솔직한 감정 표현.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다. (가해)</p> <p>*유진: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함. 느긋함. 통통한 체형. (피해)</p> <p>*민하: 똑 부러지는 성격. 지는 것을 참지 못함. 유진을 원망한다. (가해)</p>
-------------	---

	*희주: 직접 욕하지 않지만 옆에서 계속 속상하다고 빈정거린다.
시/공간 배경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복도 계단으로 이동
상황	모둠 발표가 끝난 방과 후 교실. 다른 친구들은 돌아가고 모둠 친구들만 남았다. 민우는 발표를 맡았지만 충분히 연습을 못해 모둠 발표를 망쳤다. 유진이는 자료를 제때 건네지 못해 모둠이 발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낭비하였다. 같은 모듬인 친구들은 망친 모듬 발표에 대해 속상해하며 민우와 유진이를 질책한다.

<p>희주 : (속상한 표정으로) 이제 우리 어떡해. 수행에도 들어가잖아.</p> <p>태호 : (민우에게 거친 말투로) 야, 이 한심한 새끼야. 평소에 잘하다 대체 왜 그래? 연습 좀 하지. 중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떡해?</p> <p>민우 :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 내용이 연결 안 되잖아? 네가 하든가.</p> <p>태호 : 사내새끼가 계집애처럼 앵앵대기는. 넌 말 더럽게 못하는 거 같아. 앞으로 말하는 직업은 좀 피해라. 에이, 찌따새끼.</p>	  
<p>민우 : (인상 찌푸리며, 유진에게 원망하는 말투로), 유진아, 네가 자료 정리 좀 얼른 해서 넘겼으면 연습할 시간도 있었잖아. 빨리 좀 하지.</p> <p>유진 : 나도 하느라고 했어...</p> <p>민하 : (유진에게) 게을러터져 가지고선. 지난번에도 숙제 늦게 내더니 왜 이렇게 게으르냐?</p> <p>유진 : (질책하는 친구들 째려본다.)</p>	 
<p>태호 : 뭐? 에휴, 저 나무늘보 같은 표정 좀 봐라. (코앞에서 손을 흔들며) 에이 씨, 어디서 곰뽕이 냄새 안 나냐?</p> <p>희주 :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잘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다시 발표한다고 할까? 민주네 모듬한테 졌잖아. 우리 준비한다고 했는데.</p> <p>민하 : 하, 열 받네. 이걸 어떻게 다시 하냐? 재랑 같이 한 우리가 잘못이지. 유진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 민폐다. 민폐. (발표 자료 던진다.)</p>	 
<p>민우 : (통명스럽게) 야, 됐다. 그냥 매점 가서 라면이나 먹자. 배고파서 못 있겠다. (가방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p> <p>태호 : (가방 들고 일어나 민우 쪽으로 가며) 네가 싸라. 새끼야.</p> <p>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는 태호.</p>	

<p>태호 : 넌 말도 별로지만 발표 자세도 아니더라. (민우 가까이에서 자기 키에 민우 키를 대보는 자세를 취하며) 에이, 우유 먹고 키 커야 되는 거 아니냐?</p> <p>민우, 약간 화난 표정으로 태호를 째려본다.</p> <p>민우 : 좀 놔.</p>	
<p>친구들 하나둘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한다.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유진</p> <p>민하 : (유진에게 비아냥거리듯), 왜? 유진이 너도 같이 가게?</p> <p>유진 : 나도 아까 점심 못 먹었어...</p> <p>민하 : (콧방귀 끼며) 뭐야? 지금 너 때문에 수행평가 완전 망치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 입에 뭐가 들어가냐? 그 전에 거울이나 좀 봐라. 치마 끼는 거 안 보여? 여자가 몸매 관리 좀 해라.</p> <p>교복 재킷으로 허리 쪽을 가리는 유진.</p> <p>태호 : 좋~네 아주 그냥. (랩하듯 손 흔들며 걸쭉하게 운율 맞춤) 유~진! 게을러터지고, 쌤한테 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p> <p>친구들 웃는다. 유진, 화난 표정으로 태호 째려본다.</p> <p>태호 : 왜 정색을 해? 장난이야. (랩 다시) 게을러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 쌤한테 터지고...</p> <p>유진이 화난 얼굴 클로즈업</p>	

[원인 해설]

<p>아나운서 : 발표를 망쳐 친구들이 몹시 속상했나 보네요.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친구들 끼리 주고받은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군요. 이 가시 같은 말들이 민우와 유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친구들의 집으로 함께 가 볼까요?</p>				
<p>[민우, 유진 픽토그램 일러스트]</p> <table border="1" data-bbox="188 1639 1058 2020"> <tr> <td data-bbox="188 1639 1058 1908"> <p>민우(남)의 집 화장실.</p> <p>화장실에 들어오는 민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시무룩한 표정.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p> <p>친구들의 말이 하나씩 머리 위로 나타난다.</p> <p>"너는 말 더럽게 못해.", "야, 이 한심한 새끼야.", "에이, 찌따새끼", "우유 먹고 키 좀 커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말하는 직업은 앞으로 좀 피해라."</p> <p>(민우의 가슴에 화살이 박힌다.)</p> </td><td data-bbox="1058 1639 1407 2020" rowspan="2">  </td></tr> <tr> <td data-bbox="188 1908 1058 2020"> <p>유진(여)의 방.</p> <p>침대에 누고 천장을 바라본다.</p> <p>친구들의 말이 하나씩 머리위로 말풍선처럼 나타난다. (소리 포함 영상)</p> </td></tr> </table>	<p>민우(남)의 집 화장실.</p> <p>화장실에 들어오는 민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시무룩한 표정.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p> <p>친구들의 말이 하나씩 머리 위로 나타난다.</p> <p>"너는 말 더럽게 못해.", "야, 이 한심한 새끼야.", "에이, 찌따새끼", "우유 먹고 키 좀 커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말하는 직업은 앞으로 좀 피해라."</p> <p>(민우의 가슴에 화살이 박힌다.)</p>		<p>유진(여)의 방.</p> <p>침대에 누고 천장을 바라본다.</p> <p>친구들의 말이 하나씩 머리위로 말풍선처럼 나타난다. (소리 포함 영상)</p>	
<p>민우(남)의 집 화장실.</p> <p>화장실에 들어오는 민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시무룩한 표정.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p> <p>친구들의 말이 하나씩 머리 위로 나타난다.</p> <p>"너는 말 더럽게 못해.", "야, 이 한심한 새끼야.", "에이, 찌따새끼", "우유 먹고 키 좀 커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말하는 직업은 앞으로 좀 피해라."</p> <p>(민우의 가슴에 화살이 박힌다.)</p>				
<p>유진(여)의 방.</p> <p>침대에 누고 천장을 바라본다.</p> <p>친구들의 말이 하나씩 머리위로 말풍선처럼 나타난다. (소리 포함 영상)</p>				

"너는 게을러터졌어.", "나무늘보, 곰뽕이 냄새", "너 치마 끼는 거 안보여? 완전 꺼.", "게을러터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
(화살이 유진을 향해 돌진한다. 유진, 이불로 얼굴을 덮는다.)

아나운서 : 장난삼아 한 말이 친구들의 마음에 계속 남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네요. 친구들에게 상처를 남긴 말들은 모두 공격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CG] 친구들이 하는 말이 화살이 되어서 민우와 유진의 몸에 각각 하나씩 박힌다.

아나운서 : 음, 우선 상대를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말이 있었네요.

[화면]

친구들 얼굴	친구들 얼굴
"너는 말 더럽게 못해."	"게을러터졌어."

아나운서 :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중요한 사람들이 한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능력이나 성품을 너는 '어떻다'라며 한마디로 쉽게 단정하는 표현은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민우와 유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화면: 말풍선 떠오르며]

민우 얼굴 (낙심)	유진 얼굴 (낙심)
"나는 말을 못하니 이제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하지 말자."	"나는 게을러.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폐를 끼쳐. 그냥 혼자 해야 해."

아나운서 : 이런 말들이 두 친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나운서 : 그 다음은,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이 있었지요? 상대를 놀리는 겁니다. 이런 말에는 흔히 비속어나 욕설이 함께 사용되지요.

[CG]

친구들 얼굴	민우 얼굴	친구들 얼굴	유진 얼굴
"이 한심한 새끼야" "찐따새끼" "우유 먹고 키 좀 커라."		"치마 끼는 거 안 보여?" "나무늘보" "곰뽕이" "게을러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	

아나운서 : 친구들은 민우의 능력에 대해 비속어를 섞어 조롱하고 있네요. 또 민우의 외모에 대해서도 비하하고 있군요. 여러분,



발표 연습을 조금 못했다고 한심한 건가요? 유진에게 한 말도 기억하시나요? 자료를 조금 늦게 준비했다고 꼭 저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비속어나 욕설을 섞어 성품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공격적인 언어입니다. 장난이라고 하지만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아나운서 : 또, 상대를 저주하는 말도 있었네요.

[CG]

친구들 얼굴	(민우 얼굴)		친구들 얼굴	(유진 얼굴)
"말하는 직업은 피해라."	아나운서, 교사 캐릭터에 X 표시 좌절하는 민우 얼굴	⇒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	게으른 노숙자 모습 (캐릭터)

아나운서 : 발표에서 실수했다고 말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자료를 늦게 준비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인가요? 친구들의 삶이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언뜻 보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 같지만 저주의 의미가 담긴 무서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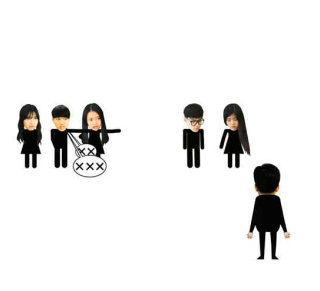
아나운서 : 마지막으로 혹시 찾으셨나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차별하는 말도 있었지요?

[CG]

친구들 얼굴	민우 얼굴		친구들 얼굴	(유진 얼굴)
"사내새끼가 계 집애처럼 웅알 대기는"	머리가 길고 치 마를 입은 민우 캐릭터(민우 픽 토그램)	⇒	"여자가 몸매 관 리 좀 해라."	역기를 들고 있 는 유진 (유진 픽토그램)

아나운서 :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내자식이", "계집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말했다고 남자답지 않은 것이고, 몸이 통통하다고 여성스럽지 않은 건가요? 이런 성차별적 표현 역시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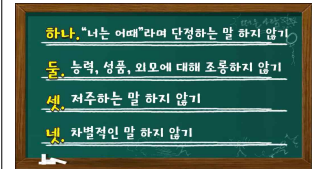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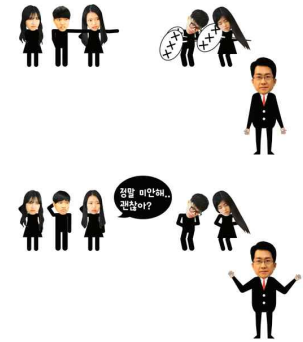
<p>[화면: 픽토그램으로 입에서 말 화살이 나와 친구들 몸에 박힌다.]</p> <p>아나운서 : 저기 친구들 몸에 박힌 말 화살 보이세요?</p> <p>태호, 희주, 민하 : 우리는 장난인데...</p> <p>아나운서 : 장난이라고 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화살을 쏘고 있었네요.</p> <p>아나운서 : 여러분, 이런 공격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p>	
--	---

깁니다.

태호, 희주, 민하 : 정말 미안해. 괜찮아? (말풍선도 삽입)

아나운서 : 하지만 친구를 배려하는 말은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는 데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말 화살을 주고받으며 상처를 남길지, 배려의 말로 상처를 치료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 하나, "너는 어때"라며 단정하는 말 하지 않기
- ▶ 둘, 능력, 성품, 외모에 대해 조롱하지 않기
- ▶ 셋, 저주하는 말 하지 않기
- ▶ 넷, 차별적인 말 하지 않기



4.3. 학습지 (학생용)

4.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공격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과 부정적 영향을 이해한다.
-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일상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이 상황에서 민우와 유진이가 들은 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봅시다.

	<민우가 들은 말>	<유진이가 들은 말>
		
상대를 단정하며 공격하는 말		
상대의 능력, 성품, 외모 등을 조롱하는 말		
상대를 저주하며 공격하는 말		

상대를 차별하며 공격하는 말		
-----------------	--	--

2. 친구들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유진에게 태호는 “장난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유진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모듈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친구들의 말에 민우가 받은 상처에 대해 모듈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4. 친구들의 말에 유진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모듈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대화 상황에서 태호와 민하의 말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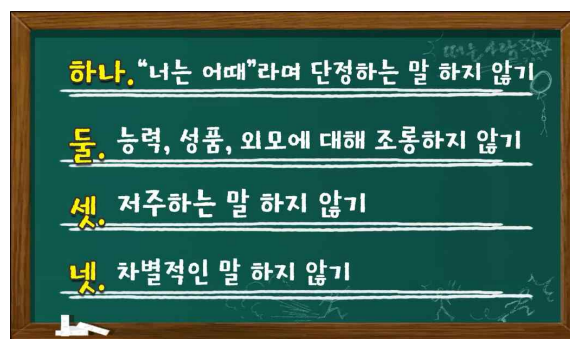
2. 다음은 대화에서 친구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영상을 다 본 후, 자신의 대화 방식을 성찰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적용하기]

1.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남기는 것의 피해와 배려의 말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봅시다.
3.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4.4. 학습지 (교사용)

<h3 style="margin: 0;">4. 공격적인 말</h3> <p style="margin: 0;">“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p> <p style="margin: 0;">()학년 ()반 성명 ()</p>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과 부정적 영향을 이해한다. ◦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 	
<p>☞ 지도상의 유의 사항</p> <p>： 청소년들의 일상 대화를 살펴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상 자료에는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담았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공격적 언어 표현의 여러 유형과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화 상황에서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하지 않고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상대와 소통하는 말하기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p> <p>※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p> <p>： 본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부정적 언어 표현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학습할 때 수업 상황에 맞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p>	
초등학교 1~2학년군	<p>(2) 듣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p> <p>상대방의 처지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말을 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u>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기분과 느낌을 고려하면서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대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u>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낱말을 알고 이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며 느낌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보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쓰는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p>
초등학교 1~2학년군	<p>(8)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p> <p>학생들은 거친 말이나 욕설 등 잘못된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험한 표현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고운 말, 바른말로 바꾸어 말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고운 말, 바른말을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오히려 욕설 등 나쁜 말을 가르치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u>실제 학생들의 잘못된 대화 장면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즐겨보는 만화, 동영상 등의 자료나 말 때문에 상처 받은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하고, 일방적 훈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u></p>
초등학교	<p>(8)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이나 결과를 예상하여 신중하게 말한다.</p>

5~6학년군	대화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방적 말하기와 달리 역동적으로 상대방 말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u>자신이 말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내용을 선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u> 말이 미칠 영향, 과정, 결과 등을 예측하면서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말하는 과정과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다루는 내용이 상대방의 기분뿐만 아니라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	(9)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 비속어 사용이 자연스럽고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운 말과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국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둔다. <u>일상 대화, 친구와의 대화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지키는 생활을 강조한다.</u> 언어 예절에 대한 실천적 동기를 내면화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 등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언어생활의 품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의 형식과 기능을 익히고,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학교 1~3학년군	(12)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과,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면 대 면 대화 상황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이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실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부정적, 폭력적 언어 사용의 폐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상호 존중의 언어 사용의 좋은 점을 깨닫고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해 보도록 한다. 일회 학습으로 폭력적 언어 사용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탐구해 보도록 지도한다.
국어 I	(3)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 품격 있는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부정적 문제 양상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u>부정적 언어 표현에는 욕설이나 비속어와 같이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 성(性)·장애·지역·민족·인종 등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 등이 있다.</u> 부정적 언어 표현의 유형과 그 영향을 인식하고,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고, 나아가 품위 있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하려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일상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다른 친구들도 모두 사용한다.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함께 대화하기 힘들다. 그냥 기분이 나쁠 때 특별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 외모나 능력에 대해 놀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의 성격에 대해 말할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한 욕설을 섞어 말할 때는 더욱 기분이 안 좋았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자들이 공격적인 언어 표현과 관련된 자신의 언어 습관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 영상을 자신의 대화 경험과 관련지으며 볼 수 있게 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이 상황에서 민우와 유진이가 들은 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봅시다.

	<민우가 들은 말>	<유진이가 들은 말>
		
상대를 단정하며 공격하는 말	야, 이 한심한 새끼야. 넌 말 더럽게 못하는 거 같아.	게을러터져 가지고선. 지난번에도 숙제 늦게 내더니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상대의 능력, 성품, 외모 등을 조롱하는 말	너 우유 먹고 키나 좀 커야 하는 거 아냐? 에이, 찌파새끼.	저 나무늘보 같은 표정 좀 봐. 어서 곰뽕이 냄새 안 나냐? 게을러터지고, 쌤한테 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
상대를 저주하며 공격하는 말	넌 이제 말하는 직업은 앞으로 좀 피해라.	유진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 민폐다. 민폐.
상대를 차별하며 공격하는 말	사내새끼가 계집애처럼 웅알대기는	치마 끼는 거 안 보여? 여자가 몸매 관리 좀 해라.

2. 친구들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유진에게 태호는 “장난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유진이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친구들의 말에 민우가 받은 상처에 대해 모듈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4 친구들의 말에 유진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모듈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태호와 민하의 말 중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표현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일상의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공격적인 언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모듈별로 이야기하도록 하여 여러 사람이 느낀 바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대화 상황에서 태호와 민하의 말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상대의 특정 행동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특히 '너는'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발표는'과 '이번에 준비한 발표 자료는'과 같이 사람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상황을 한정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민우야,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지난번보다 많이 떠는 것 같던데, 괜찮아? 수고했다.”

“유진아, 발표 자료 혼자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이번에는 약속한 시간보다 늦었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2. 다음은 대화에서 친구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친구의 실수 한 번 때문에 친구의 앞날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저주의 의미가 담긴 이러한 표현은 자존감을 낮추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 걱정해 주며 충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의 말투이지만 말의 내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상대를 위해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무의식중에 상대를 저주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도상의 유의 사항

: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일대일로 고치기보다 그러한 표현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짝 활동이나 모둠 토의를 통해 대화 장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여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상위인지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영상을 다 본 후, 자신의 대화 방식을 성찰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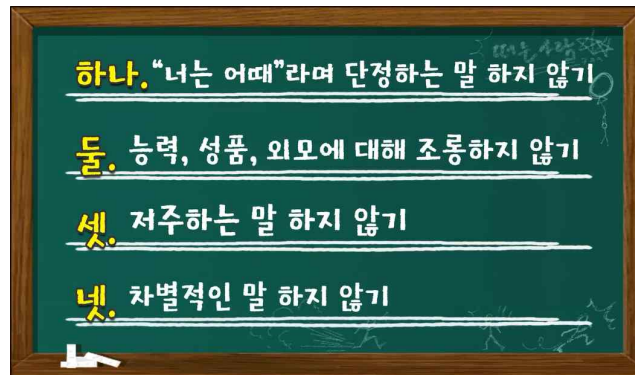
1.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2.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남기는 것의 피해와 배려의 말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습자로 하여금 이 네 가지 중 자신의 평소 말하기 방식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도록 한다. 교육 내용을 영상 자료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영화나 드라마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활동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성찰과 바람직한 말하기 습관에 대한 다짐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한다.

5. 대화 구도 인식 차이

: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5.1. 개발 의도 및 취지

□ 개발 의도와 취지 : 이 자료는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제작되었다. 일상의 대화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오해 가운데에는 발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들이 많다. 이는 대부분 화자의 의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화는 사소한 듯 보이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자료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대화에 있어 상호적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대화 구도 이해의 중요성

대화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다.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종종 발견한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면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오해가 발생하여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종종 듣게 되는 대화이다.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대화 맥락에서 서로의 이해를 배려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 생긴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화자는 청자의 이해를 생각하여 발화해야 하며,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재하거나, 화자가 충분히 이해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청자가 화자의 암묵적 상황정보를 무시했을 때, 오해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가 사실상 사소할 수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대화 방식을 지속할 경우,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훈련해야 할 대화의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 대화의 구도 특성 및 실태

의사소통의 구도란 의사소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 구조를 미리 예상하는 틀을 의

미한다. 이 틀에 따라 이해와 오해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농담으로 해석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진담으로 해석되어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는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이며,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구도를 정확히 맞추고 대화를 진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임의로 대화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호 질문하면서 구도를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한국화법학회 화법 용어 해설 위원회 (2014) 화법 용어 해설, 박이정.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대화 맥락에 대한 참여자의 오해로 인해 대화 구도가 서로 달라 생기는 오해의 장면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내용은 반장 역할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달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해의 장면이다. 성규는 이전의 반장의 업무에 대한 질책을 마음에 두고, 반장이 무엇이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비 사용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민하는 반장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과거의 지적은 그 당시의 일의 진행을 말한 것뿐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반장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차이,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속적인 오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태호와 희주는 충고와 비난의 구도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 희주는 태호를 걱정하여 한 말을 태호는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의 차이는 결국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합치시켜야 한다. 대명사 “저기”보다는 명사인 “영화관”이 명료하듯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합치하기까지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후의 해결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5.2. 시나리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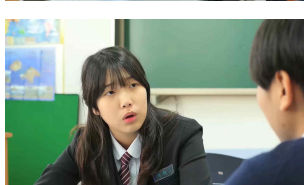


<p>(픽토그램 그래픽 효과) 나란히 앉아 있는 남녀.</p> <p>여자 말풍선 “와, 멋있다” / 남자 말풍선 “와, 그렇게 진짜 멋있다”</p> <p>여자 말풍선 “저 걷는 모습 좀 봐” / 남자 말풍선 “와, 예술이다. 무슨 운동을 했을까?”</p> <p>여자 말풍선 “개가 무슨 운동을 해?” / 남자 말풍선 “뭔 소리야?”</p> <p>남녀 서로 마주본다.</p>	
--	---

<p>카메라가 뒤로 빠지며, 남자와 여자 앞쪽 가운데 쪽에 보이지 않았던 큰 개와 함께 근육질 남자가 걷는 모습이 보인다. (남자의 시선은 근육질 남자 쪽으로, 여자의 시선은 큰 개 쪽으로 향함.)</p>	
<p>오른쪽에서 아나운서 등장.</p> <p>아나운서 : 여러분들은 친구와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나요?</p> <p>개와 서 있던 근육질 남자. 아나운서가 남자를 보고는 순정 만화에서와 같은 눈(CG). 부러운 얼굴의 아나운서. (아나운서 옆에 '부럽 부럽')</p> <p>아나운서 : 응? 우와, 저 근육 뭐야?</p>	
<p>화면 위쪽에서 패드가 나오고, 패드 전원이 켜진다. 깜짝 놀라는 아나운서. 패드 화면에 달린 입체 글자 제목이 효과음과 함께 내려온다.</p> <p>"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p>	
<p>아나운서 : 아이, 깜짝이야. (목소리 가다듬고) 흠! 흠!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p> <p>패드 화면 클로즈업되며 전체 화면으로 전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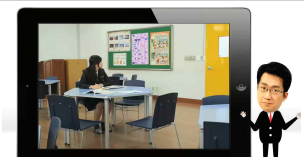
[문제 상황]

등장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호 : 약간 자기중심적, 현실적 * 성규 : 감정적, 솔직함. * 민하 : 똑 부러지는 성격, 관계 지향형 성격 * 희주 : 직접 욕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시/공간 배경	교실
상황	반 청소를 마치고 임원들끼리 남은 상황

<p>민하 : 애들아, 모여 봐.</p> <p>(친구들이 민하 주변으로 모인다.)</p> <p>민하 : 우리 내일 4교시면 끝나니까 지난 반비 남은 걸로 간식 먹는 거 어때?</p> <p>성규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 : 그래, 좋아.</p>	
<p>성규 :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해서 햄버거 예약해 뒀어.</p> <p>민하 : 뭐? 그걸 왜 너 혼자 결정해?</p> <p>성규 : 반장은 뭐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 처리 해야 된다면서?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잖아.</p>	

<p>민하 : (짜증 난 어투로)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천천히 하니까 그런 거고. 이건 다르지.</p> <p>성규 : 뭐가 달라? 그리고 내가 반장인데 그것도 내 맘대로 못해?</p> <p>태호 : 야, 싸우지 마. 애들한테 잘 얘기해서 그냥 내일 햄버거 먹자.</p> <p>민하 : 으이그,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더 이상 회의할 거 없지? 나 먼저 간다. (가방을 들고 나서는 민하)</p>	 
<p>성규 : (짜증내며) 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가방을 챙기며) 집에나 가야겠다.</p> <p>태호 : 그래. 내일 봐.</p> <p>성규 : 너넨 안 가?</p> <p>태호 : 난 좀 이따...</p> <p>희주 : (바쁜 듯 얼굴도 안 보고 학급일지를 기록하며) 응, 나도 이거 마저 정리하고.</p>	 
<p>성규도 나간다. 태호와 희주만 남는다. 희주와 약간 떨어져 앉아 있던 태호. 의자를 끌고 다가가 희주 쪽을 보고 앉으며.</p> <p>태호 : 희주야! 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토론 대회 나가 보려고.</p> <p>희주 : (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진짜? 언제 하는데?</p> <p>태호 : 다다음주 토요일.</p> <p>희주 : 준비 다 했어?</p> <p>태호 : 아니, 어제 팀 다 짰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토론 좀 하잖나.</p> <p>희주 : (진지하게) 진짜? 우리 오빠는 학교 대회에서 1등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도 시 대회에선 예선 통과도 못했어. 혹시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있는 거야?</p> <p>태호 : 아니? 우리끼리 해 보려고.</p> <p>희주 : 헐. 우리 오빠 때는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었는데...</p> <p>태호 :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으며) 너 지금, 내가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야? 자라나는 새싹 밟는 거야 지금?</p> <p>희주 : 아니,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p> <p>태호 : 됐어! 너 내가 1등해서 상금 타도 국물도 없어! 나 먼저 간다!</p>	   

[원인 해설]

<p>아나운서 :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평소 대화조?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세히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p>	
--	---

아나운서 : 성규와 민하의 생각이 약간 다르군요.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림] **성규**의 생각 풍선 속에는 창문 그림 안에 완장을 두른 독재자의 그림과 **민하**의 생각 풍선 속에는 창문 그림 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지도자의 모습.

성규 :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해서 햄버거 예약해 뒀어.

민하 : 뭐? 그걸 왜 너 혼자 결정해?

아나운서 : 성규는 반장이 결단력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성규 : 반장은 뭐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 처리 해야 된다면서?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잖아.

민하 : (짜증 난 어투로)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천천히 하니까 그런 거고. 이건 다르지.

성규 : 뭐가 달라? 그리고 내가 반장인데 그것도 내 맘대로 못해?

아나운서 : 그런데 민하는 반장은 모두의 의견을 잘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림] **희주**의 생각 풍선에는 창문 그림 안에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 보자.>, **태호**의 생각 풍선에는 창문 그림 안에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듣고 싶어.>

아나운서 : 희주는 태호가 토론 대회에 나가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 어제 팀 다 짰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토론 좀 하잖나.

희주 : (진지하게) 진짜? 올 오빠는 학교 대회에서 1등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도 시 대회에서 예선 통과도 못했어. 혹시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있는 거야?

태호 : 아니? 우리끼리 해 보려고.

희주 : 헐... 우리 오빠 때는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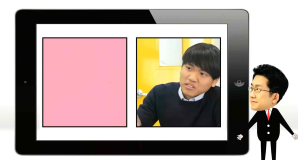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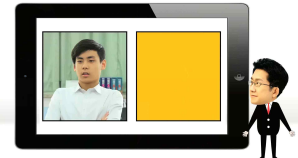
태호 : (기분 나빠하는 표정) 너 지금, 내가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야? 너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 밟는 거야, 지금?






희주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태호 : 됐어!

아나운서 : 희주는 걱정이 되어 오빠의 사례를 얘기해 주었는데, 태호는 이 말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네요. 이렇게 서로의 의도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갈등이 생기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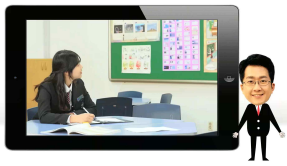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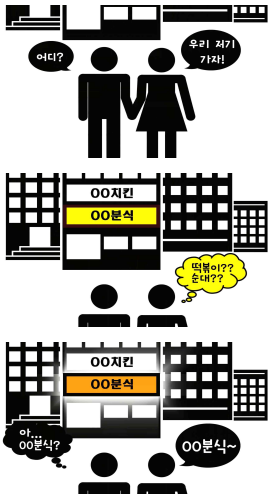


[개선 상황]

<p>아나운서 :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로의 생각을 맞추어 가며 대화하는 장면을 볼까요?</p>	
<p>민하 : 애들아, 모여 봐. (친구들이 민하 주변으로 모인다.) 민하 : 우리 내일 4교시면 끝나니까 지난 반비 남은 걸로 간식 먹는 거 어때? 성규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 : 좋아.</p>	
<p>성규 :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해서 햄버거 예약해 뒀어. 민하 : 뭐? 그걸 왜 너 혼자 결정해? 성규 : 반장은 뭐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 처리 해야 된다면서?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잖아.</p>	
<p>민하 : (짜증 난 어투로)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천천히 하니까 그런 거고. 이건 다르지. 성규 : 뭐가 달라? 그리고 내가 반장인데 그것도 내 맘대로 못해? 태호 : (부드러운 톤으로) 성규야, 반비는 우리 반 모두를 위해서 쓰라고 있는 돈인데 반 친구들 의견도 좀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성규 : 나는 나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애들이 싫어할까? 민하 : 물어보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싫어하는 애들이 있을지도 몰라. 성규 : (깨달은 듯)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일단 햄버거 취소 되는지 알아보고, 취소되면 내일 뭐 할지는 조퇴시간 때 정하자. 모두들 : 그래, 좋아.</p>	
<p>민하 : 얘기 다 끝났음 가자! 민하, 성규 일어나서 나가려 한다. 태호 : 내일 봐. 성규 : 너넨 안 가? 태호 : 난 좀 이따가... 희주 : (바쁜 듯 얼굴도 안 보고 학급일지를 기록하며) 응... 나도 이거 마저 정리하고.</p>	
<p>성규도 나간다. 태호와 희주만 남는다. 희주와 약간 떨어져 앉아 있던 태호. 의자에서 돌아앉아 희주 쪽을 보고 앉으며. 태호 : 희주야! 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토론 대회 나가보려고. 희주 : (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진짜? 언제 하는데?</p>	

<p>태호 : 다다음주 토요일.</p> <p>희주 : 준비 다 했어?</p> <p>태호 : 아니, 어제 팀 다 짰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토론 좀 하잖냐.</p> <p>희주 : (진지하게) 그렇지. 네가 토론 좀 하지.</p> <p>태호 : 그렇지?</p> <p>희주 : (약간 고민되는 표정으로) 물론, 평소 네 실력만 잘 살리면 문제는 없긴 한데.</p> <p>태호 :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런...데?</p> <p>희주 : 울 오빠도 해봤는데 많이 힘들다더라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때? 너희끼리만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야.</p> <p>태호 : (밝은 표정으로) 그래! 역시, 내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고마워~ 내가 일등해서 상금 타면 너 맛있는 거 쓸게. 나 먼저 갈게. 내일 봐!</p>	
---	---

[마무리]

<p>아나운서 : 어떨까요? 말을 하면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맞춰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말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첫 장면처럼 두 남녀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곳에는 2층에는 분식집이 있고, 3층에는 치킨집이 있는 건물이다. 생각 풍선에는 창문이 있고 각각 남자의 창문에는 치킨집이 여자의 창문에는 분식집이 그려져 있다.</p> <p>여자 : (생각 풍선 속에 분식집을 그리고 화살표로 지적해 주면서) "우리 저기 가자!"</p> <p>남자 : 어디?</p> <p>여자 : 저기!</p> <p>남자 : 저기?</p> <p>여자 : (생각 풍선) 떡볶이? 순대?</p> <p>남자 : (생각 풍선) 아싸! 치킨.</p> <p>여자 : ○○분식.</p> <p>남자 : 아... ○○분식? 그래, ○○분식!</p> <p>(마지막 자막)</p> <p>" 대화는 결국 서로 다른 생각의 창을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다."</p>	 <p>" 대화는 결국, 서로 다른 생각의 창을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다 "</p>

5.3. 학습지 (학생용)

5. 대화 구조 인식 차이 이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대화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대화 구조의 차이로 인한 오해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방법을 익힌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때 자신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성규의 결정에 대해 왜 민하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나요?
2. 성규는 민하의 태도에 왜 화가 났나요?
3. 민하와 성규의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태호는 희주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며 말한 것일까요?
5. 희주는 어떤 마음으로 태호에게 말한 것일까요?

6. 둘의 대화에서 태호가 마음 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대화의 구도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생각해 보기]

1. 다음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성규의 대화를 들은 민하가 어떻게 반응했다면 성규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민하 : 애들아, 모여 봐.
(친구들이 민하 주변으로 모인다.)
민하 : 우리 내일 4교시면 끝나니까 지난 반비 남은 걸로 간식 먹는 거 어때?
성규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 : 그래, 좋아.
성규 :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해서 햄버거 예약해 뒀어.
민하 : 뭐? 그걸 왜 너 혼자 결정해?
성규 : 반장은 뭐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 처리 해야 된다면서?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잖아.

[2-3] 다음 대화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성규도 나간다. 태호와 회주만 남는다. 회주와 약간 떨어져 앉아 있던 태호. 의자를 끌고 다가가 회주 쪽을 보고 앉으며.
태호 : 회주야! 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토론 대회 나가 보려고.
회주 : (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진짜? 언제 하는데?
태호 : 다다음주 토요일.
회주 : 준비 다 했어?
태호 : 아니, 어제 팀 다 짰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토론 좀 하잖나.
회주 : (진지하게) 진짜? 우리 오빠는 학교 대회에서 1등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도 시 대회에선 예선 통과도 못했어.
혹시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있는 거야?
태호 : 아니? 우리끼리 해 보려고.
회주 : 헐. 우리 오빠 때는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태호 :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으며) 너 지금, 내가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야? 자라나는 새싹 밟는 거야 지금?
회주 : 아니,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태호 : 됐어! 너 내가 1등해서 상금 타도 국물도 없어! 나 먼저 간다!

2. 여러분이 회주라면 태호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3. 여러분이 태호라면 회주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4. 위 두 대화의 문제를 통해 상대의 의견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까요?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의 맥락과 의사소통 구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친구나 가족 가운데 어떤 말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거나, 마음속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나요?

(1) 그 말은 무엇이었나요?

(2) 그 말을 친구는(가족은) 어떤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3) 나는 그 말에 왜 기분이 나빴나요?

2. 오늘 그 친구나 가족에게 가서 용기 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의 뜻과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3. 2번까지를 수행한 후에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5.4. 학습지 (교사용)

5. 대화 구도 인식 차이 이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대화 구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대화 구도의 차이로 인한 오해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방법을 익힌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청소년 또래 대화를 들어 보면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예단하여 대화함으로써 오해가 생기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서로의 대화 구도(프레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예단하여 대화를 지속해 감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여기서 대화의 구도란 화자나 청자가 대화의 과정에서 의도하는 의미의 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규와 민하의 대화에서 대화의 중요 관점은 ‘반장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대하여 성규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민하는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둘의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관점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서로의 관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점에서 대화의 불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태호와 회주의 대화도 태호는 격려를 회주는 충고를 해 주고자 하는 발화 목적이 서로 엇갈리면서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신의 의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서로가 발화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해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의 구도를 맞추는 작업은 오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의도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의 말을 자신의 생각에만 맞춰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공감하여 듣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학습지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동영상과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봄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하고, 이를 이야기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람직한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간의 대화는 녹음된 파일처럼 상황에 맞추어 동일하게 재생함으로써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내가 상대와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서도 정답 찾기의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평소 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며, 진단하여 방법론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본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구도에 대하

여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을 가진 경우에 수업 상황에 맞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화법과 작문</p>	<p>(27)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 작용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 <u>의사소통의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내용적 차원을 넘어 상호 작용의 구도와 방식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 의사소통 방식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u></p>
--------------------------	--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때 자신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지도상의 유의 사항

모둠이 아닌 짝 활동을 시도해 본다. 짝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둠 내에서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짝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성규의 결정에 대해 왜 민하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나요?

→ (예시 답안) 함께 결정할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

2. 성규는 민하의 태도에 왜 화가 났나요?

→ (예시 답안) 민하의 지난 태도와 지금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3. 민하와 성규의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예시 답안)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이전에 화를 먼저 내고 있는 점.

4. 태호는 희주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며 말한 것일까요?

→ (예시 답안) 격려의 말

5. 희주는 어떤 마음으로 태호에게 말한 것일까요?

→ (예시 답안) 걱정하는 마음

6. 둘의 대화에서 태호가 마음 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시 답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상의 유의 사항

이 내용은 정답을 맞히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대화의 구도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생각해 보기]

1. 다음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성규의 대화를 들은 민하가 어떻게 반응했다면 성규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민하 : 애들아, 모여 봐.

(친구들이 민하 주변으로 모인다.)

민하 : 우리 내일 4교시면 끝나니까 지난 반비 남은 걸로 간식 먹는 거 어때?

성규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 : 그래, 좋아.

성규 :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해서 햄버거 예약해 뒀어.

민하 : 뭐? 그걸 왜 너 혼자 결정해?

성규 : 반장은 뭐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 처리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잖아.

→ (예시 답안) 어떤 의도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어본다.

[2-3] 다음 대화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성규도 나간다. 태호와 회주만 남는다. 회주와 약간 떨어져 앉아 있던 태호. 의자를 끌고 다가가 회주 쪽을 보고 앉으며.

태호 : 회주야! 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토론 대회 나가 보려고.

회주 : (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진짜? 언제 하는데?

태호 : 다다음주 토요일.

회주 : 준비 다 했어?

태호 : 아니, 어제 팀 다 짰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토론 좀 하잖나.

회주 : (진지하게) 진짜? 우리 오빠는 학교 대회에서 1등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도 시 대회에선 예선 통과도 못했어.

혹시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있는 거야?

태호 : 아니? 우리끼리 해 보려고.

회주 : 헐. 우리 오빠 때는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태호 :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으며) 너 지금, 내가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야? 자라나는 새싹 밟는 거야 지금?

회주 : 아니,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태호 : 됐어! 너 내가 1등해서 상금 타도 국물도 없어! 나 먼저 간다!

2. 여러분이 회주라면 태호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 (예시 답안)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 확인 해 봤니?”와 같이 자신의 의도를 먼저 밝혀 말한다.

3. 여러분이 태호라면 회주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 (예시 답안) 화를 내기보다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의도를 묻거나 자신의 의도를 밝힌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난 그냥 걱려의 말이 듣고 싶어서 한 말이야.”

4. 위 두 대화의 문제를 통해 상대의 의견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까요?

→ (예시 답안)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물어보거나 자신의 의도를 명료하게 밝혀 서로의 대화 맥락의 구도를 맞추고자 노력해야 한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대화 맥락의 이해하고 서로의 대화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호간 질문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떤 의미야? 잘 모르겠는데?”, “○○○○ 의미로 말하는 거야?” 등의 확인하는 대화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위의 학습지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에도 단정하고 화부터 내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의 맥락과 의사소통 구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친구나 가족 가운데 어떤 말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거나, 마음속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나요?

(1) 그 말은 무엇이었나요?

(2) 그 말을 친구는(가족은) 어떤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3) 나는 그 말에 왜 기분이 나빴나요?

→ (예시 답안) 생략

2. 오늘 그 친구나 가족에게 가서 용기 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의 뜻과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 (예시 답안) 생략

3. 2번까지를 수행한 후에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 (예시 답안) 생략

지도상의 유의 사항

상황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제시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언어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와 원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국내외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또래 간 대화 지도 동영상 자료 및 학습지를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의 언어 교육 영상 자료가 비속어 등에 대한 교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치우쳐 있고, 바른 대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인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청소년 대화 지도에 관한 해외 사례인 미국의 ‘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호주의 ‘Comebacks’ 프로그램, 핀란드의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동영상 자료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공감적 경청’, ‘비언어적 표현’, ‘공격적인 말’, ‘대화 구도 인식 차이’의 다섯 가지를 청소년 대화 지도 동영상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주제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로 설정하여 동영상 자료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영상 자료를 개인은 물론 교실 수업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로 단계화하였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상황에 따라 각 단계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각 영상에 맞는 학습지를 개발하여 교사가 영상을 개발 의도와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비속어 교정 중심, 성인 및 유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언어 교육 영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또래 간 대화 방식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가 단순히 일회적인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대화 지도 수업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지속적인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연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청

년들에게 외면 받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화 교육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학교 교육 체제와 연동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화 지도 자료가 학교의 수업의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동영상 공모대회’ 개최를 통해 실제성 높은 언어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 영상과 ‘개선 상황’ 영상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화상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개선해 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동영상 공모대회’와 같은 행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대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대화 문제 개선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또래 대화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화 문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으나, 청소년들은 학령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의 차이가 크고 언어 사용 방식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령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건전한 청소년의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에 국한하지 말고 부모와의 대화 프로그램, 가족 간 대화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대화 교육의 효과가 가정과 사회로 점차 확대되어 바람직한 청소년 대화 문화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대화 지도 대상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학부모로 확장함으로써 청소년 대화 교육에 대한 가정의 관심을 제고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자료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청소년 또래 간 대화 지도 자료의 보급 및 확산 방안을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료가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한다면 향후 교육적 효과가 더욱 높은 대화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문헌자료

- 강희숙·양명희(2011), 청소년의 욕설 사용의 심리적 기제 및 순화 방안,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2011),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 어문학 111, 한국언어문학회.
- 교육과학기술부(2010), 학교생활 욕설 사용 실태 조사,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국어원(2011),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 국립국어원.
- 김미형 외(2005), 인간과 언어-본능과 능력 사이, 박이정.
- 김정선(2012),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및 바람직한 인성 교육 강화 방안,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언어문화 개선 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평원(2012),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 김한나(2012), 일상화된 청소년 욕설의 원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연속 토론회 발표 자료집,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2010), 방송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동섭(1995), 대화분석에 의한 또래 협력 과정 이해,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순애(2008), 또래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희숙(2009), 또래협력학습 과정에 의한 유추문제수행 향상 아동의 대화 내용 분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6-2,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 서현석(2005),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 -의사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 _____ (2013), 인성교육을 위한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초등국어교육 5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 문화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이동민(2012), 청소년 욕설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 이윤지(2013),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희 외 (2011), 청소년 언어 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호·김미형·임소영(2004),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회의 유쾌한 춤사위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한국교육개발원(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수탁연구 CR2010-36,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직원총연합회(2011), 언어문화 개선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영상자료

- 국립국어원·KBS(2009), 말의 힘
- 국립국어원(2013), 경어법 홍보 영상

문화체육관광부(2013), 당신의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
EBS 다큐프라임(2011), ‘욕’해도 될까요?
EBS(2011), 언어발달의 수수께끼
KBS(2011), 한글날 기획 청소년 욕 사용 실태 보고
____(2013), 세종대왕으로 통하다

웹사이트

중앙일보 <놀리는 친구에게 “관심 고마워” 하라고?> 2014-02-21 16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960803)
Defend yourself : 미국의 언어적 자기방어 (www.defendyourself.org)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http://www.clemson.edu/olweus/>)
Kiva anti bullying program (www.kivakoulu.fi)

연구 책임자 :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 전은주(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재현(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현석(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유미(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보조 연구원 : 조진수(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과정)
 심미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과정)
 검토 및 자문 : 김평원(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선영(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최영인(서울대학교 BK21+ 연수연구원)
 이민수(삼정중학교 교사)
 이민형(서일중학교 교사)
 이주영(광남중학교 교사)
 최승은(부천상도중학교 교사)
 오종수(양일고등학교 교사)
 영상 제작 : (주) SWINK(담당 프로듀서: 오정희)
 촬영 협조 : 박재홍(CBS 아나운서)
 촬영 장소 : 서울중앙중학교(담당 교사: 박인규)
 담당 연구원 : 이기연(국립국어원 학예 연구사)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12월 12일
발행일	2014년 12월 12일
인쇄	가람 문화사